

벨기에

정보수정일자: 2012. 04. 30

작성처: 브뤼셀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3
한국과의 주요이슈 /9

II.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10
주요 산업 동향 /1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9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1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3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5
대한수입규제동향 /27
관세제도 /29
주요인증제도 /31
지식재산권 /37
통관운송 /40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6
- 외국기업 투자동향 /51
- 우리기업 투자동향 /5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3
- 진출형태별 절차 /59
- 투자입지여건 /68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74
- 조세제도 /77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80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82
- 물가정보 /87
- 바이어발굴 /88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91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93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94
- 이주정착 가이드 /95
- 출장가이드 /97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15
- 유관기관 웹사이트 /117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벨기에(Belgium)
위 치	북유럽, 프랑스, 화란, 독일, 룩셈부르크와 접경
면 적	30,528km ² (유럽의 1/330, 경상도 크기)
기 후	해양성, 일평균 기온: 11.5℃, 최고, 최저 평균 기온: 15.3℃, 7.8℃
수 도	브뤼셀/ BRUXELLES(프랑스어), BRUSSEL(네덜란드어), BRUSSELS(영어)
인 구	1,097만 명(2011년 말 기준)
주요 도시	브뤼셀(109만 명), 안트워프(48만 명), 리에주(19만 명), 샤를루와(20만 명), 겐트(24만 명) (2012.2.14)
언 어	플란더스 지방: 네덜란드어 왈로니아 지방: 프랑스어 브뤼셀: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공용 독일어 공동체: 독일어
종 교	로만 가톨릭(75%), 그 외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유대교
독립일	1830년 7월 21일
정부 형태	○ 입헌군주국으로서 내각책임제 ○ 연방 국가 - 연방 정부 - 지방 정부(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등 3 개 지방 정부), - 언어 공동체(왈로니아- 브뤼셀의 프랑스어 공동체, 네덜란드어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로 구성
국가 원수 (실권자)	국가 원수: 알베르 2세(제6대 국왕) 취임일: 1993년 8월 9일
	연방 정부 총리: 엘리오 디 루뵈(Elio Di Rupo (2011.12.8 신정부 출범)

나. 경제 지표 (2011)

GDP	3,548억 유로 1인당 GDP: 32,332 유로
실질 경제성장률	1.9%
실업률	7.3%
물가 상승률	3.5%
화폐 단위	유로(EURO) (2002년 1월 1일부터)
환율	1 유로 = 1.3920달러(2011년 평균 환율)
외채	1,079,265 백만 유로(2011.3분기말, 국가 총 외채)
산업 구조	서비스업(69.1%: 상품서비스 56.2%, 공공/교육 서비스 12.9%) 제조업(14.7%, 전기, 가스, 물 제외), 건설 4.6%, 농.임.수산업(0.6%), 기타 11%(부가가치창출기준)
교역 규모	○ 수출: 3,422 억 유로 ○ 수입: 3,319 억 유로 ○ 수지: 103 억 유로
교 역 품	○ 수출 - 화학·의약품, 기계, 석유, 운송기기,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귀금속, 식품, 섬유제품, 광학기기
	○ 수입 - 화학·의약품, 석유, 기계, 운송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귀금속, 식품, 섬유제품, 식물성제품

자료: 벨기에 중앙은행(2012년3월9일)

다. 한-벨 관계

체결 협정	○ 사증면제협정('70), 투자보장협정('74), 항공협정('75) ○ 이종과세방지 협정('77), 경제협력 협정('78) ○ 문화협정('78) 해운협정('87) ○ 운전면허 상호승인 교환각서('90) ○ 이종과세 방지협정 보조협약 개정 서명('94) ○ 항공협정 개정('95),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투자보장 협정서명('06.12), 형사사법공조 조약서명('07.1) 사회보장협정발효('11.7)
교역 규모	○ 우리나라의 수출 22억 56백만 달러 ○ 우리나라의 수입 14억 50백만 달러
교역품	○ 우리나라의 수출 - 건설중장비, 승용차, 윤활유, 이연도강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개별소자반도체, , 기타정밀화학원료, 합성고무,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 우리나라의 수입 - 기타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합성원료, 의약품, 중후판,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가축육류, 천연가스, 합성고무, 열연강판 등
투자 교류	○ 벨기에에 대한 투자: 3건, 159만 9 천 달러 ○ 우리나라의 대 벨기에 투자: 4건, 3억 4987만 6 천 달러
교인	약 450명 (주재원 및 체류자 포함)

자료: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 Kotis,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최근 정치 현안

2010년 6월 13일 총선거 이후 540일만인 2011년 12월 7일에 엘리오 디 루뵘(Elio Di Rupo) 사회당 당수(프랑스어계 사회당 당수로 6.13 선거에서 프랑스어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함)를 총리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신 정부는 2012년도 정부예산의 균형에 필요한 113억 유로를 42%는 정부지출 절감에서 34%는 세금 인상에서 나머지 28%는 여타 조치를 통해 마련키로 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 저교육 근로자층 고용지원 예산 감축(서비스권 개당 단가 인상)

전 벨기에 정부는 노동인구 가운데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저교육 근로자층의 고용 창출과 동시에 불법 노동을 방지키 위한 조치로서 일정 서비스직종에 서비스권(Titre-services) 이라고 부르는 고용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서비스권은 서비스 분야에서 불법 노동을 없애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가정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신고하고 고용할 경우 시간당 18-20 유로 정도가 드는데 정부에서 발행하는 서비스권을 이용하면 7.5 유로밖에 들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로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줄일 수는 있었지만 정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서비스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인상키로 했다. 즉 서비스권이 개당 7.5유로이었는데 이를 2012년 1월 1일부터 8.5유로로 인상한 것이다.

□ 동산에 대한 원천과세율 인상

저축이자에 대한 원천과세율이 인상된다. 지금까지 저축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율이 15%였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는 21%로 인상된다. 그러나 배당금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종전과 같이 25%이다.

□ 고소득층의 동산에 대한 원천과세율 인상

연간 동산 소득액이 20,000 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 층의 경우 20,000 유로 초과 분에 대해 원천과세율 4%가 추가 과세되어 초과액에 대해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 대형 회사차에 대한 과세율 인상

신 정부는 대형 회사차에 대한 과세율을 인상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2억 유로 세입을 예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형차에 대한 과세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오염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연비가 큰 대형차에 대한 과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증권 매매 수익에 대한 과세 제도 도입 동 제도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법인이 매입한 증권을 1년 내에 매각할 때, 판 가격이 산 가격보다 높을 때 차액에 대해 원천 과세 25%가 부과된다. 단, 매입 1년 후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Stock-options

Stock-options은 대기업 이사들에 대한 급여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과세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증권거래세 도입

증거거래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과 세율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가상이자제도 법인의 고유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써 고유자본액의 3.425%를 법인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해 주었는데 2012년부터는 3%로 줄임으로써 벨기에 정부는 16억 유로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다.

□ 소비세(Accises) 인상

담배와 주류에 대한 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 공공지출 감축

연방정부 행정부 예산을 감축하고 연간 국민의료보험지출 증가율도 4.5%에서 2%로 감소할 방침이다.

□ 조기퇴직 및 실업수당 혜택 조건 강화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 시 경우 50세부터 조기퇴직이 가능했으나 2012년부터는 52세부터 가능하고 점점 연장되어 2018년에는 55세부터 가능해 질 것이며 구조조정 이외의 경우 조기퇴직이 점점 어렵게 될 뿐 아니라 60세 이전에 조기 퇴직할 수 없고 62세부터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도 근무연한이 40년에 달해야 가능해 진다. 한편 실업수당을 부여하는 조건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나. 국가 제도

1) 행정부

입헌군주국으로서 국가 체제는 연방 국가로, 연방 정부(중앙 정부)와 3개의 지방 정부 및 3개의 언어별 공동체(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독일어 공동체는 극히 작음)로 구성되고 정부(연방과 지방) 형태는 다수 내각 책임제이다.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은 국가간 외교, 국방, 사회보장, 통화, 세제, 안보 및 치안, 사법 분야에 국한되고 나머지 분야는 지방 정부와 언어 공동체 권한에 속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경제, 외국의 지방 당국과의 경제, 과학, 문화적 외교 관계, 지역 고용 정책, 토지 관리 정책, 과학 기술 개발 정책, 도로, 항구 등 공공 사업 등을 관할하고 언어 공동체는 교육, 문화, 복리 후생(장애인, 탁아소, 청소년 보호 등)을 관리한다. 지방 정부로는 플레미쉬, 왈로니아, 브뤼셀의 3개 지방 정부가 있고 언어 공동체로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3개 공동체가 있다. 또한 각 지방 정부와 공동체는 고유의 행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다.

2)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법관은 국왕에 의해 종신직으로 임명되며 형법 상 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최고 재판소로는 브뤼셀에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있으며 상급법원은 각 주에 있는 중재 재판소(Cour d'Assise)와 5개 지방에 상고법원(Cour d'Appel)이 있다. 또한 24개의 사법 구에 1심 재판소(Tribunal de Premiere Instance)가 있고 각 읍에는 1개의 치안 재판소(Justice de Paix)가 있다. 특별 법원으로는 노동 법원, 상사 법원, 청소년 법원, 전쟁 법원, 군법 회의가 있으며 최고 행정 재판 기관으로는 국가 평의회(Conseil d'Etat)가 있다.

3) 의회

벨기에의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하원은 직접 및 보통 선거에 의한 선거 구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150명의 직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며 입법권이 있다.

반면 상원은 입법권이 없이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총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0명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10명은 직선 상원의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나머지 21명은 언어 공동체 의회에 의해 파견된 의원들이다. 상원의 임기도 4년이다. 한편 지방 의회 의원은 직접 및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브뤼셀 지방의회는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환경, 도시 계획, 공공 사업, 청결 문제, 운송 등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의원들이 따로 모여 각각 프랑스어권 의회, 네덜란드어권 의회를 구성한다. 이들 각 언어권 의회는 해당 언어권의 교육과 문화 등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취급한다.

왈로니아 지방 의회도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경제, 환경, R&D, 도시 계획, 공공 사업, 청결 문제, 운송 등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한편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는 왈로니아 지방 의회의 의원 75명과 19명의 브뤼셀 지방 의회의 의원(프랑스어 의원)으로 구성되며 문화, 교육, 시청각 등 개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플레미쉬 지방 의회는 1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118명은 직접 및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6명은 브뤼셀 지방의회의원(네덜란드어의원)들이다. 이는 왈로니아 지방과는 달리 플레미쉬 지방은 지방 의회와 언어공동체의회를 합병한 대신 브뤼셀 지방의회의 플레미쉬 언어 의원을 통해 브뤼셀 지역의 플레미쉬어권 문제를 별도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독일어 공동체 의회의 25명의 의원 모두는 직접 및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문화, 교육, 시청각 등 언어 공동체 의회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 이외에도 유물 및 유적지 관리 권한이 있다.

다. 정치 제도

1) 선거 제도

하원 의원(총 150석)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의 벨기에 국적의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의무 투표제이다(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선거 주기는 4년이나 내각과 국회가 해산되면 만기 이전이라도 총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정치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해산 때에 국회가 임시 수상을 임명하고 국회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만 내각과 국회가 해산된다.

정당 활동과 선거 유세에 따른 사회 부정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선출된 국회 의원 수를 기초로 정당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의 재정 감사를 받는다.

2) 정당 제도 및 현황

벨기에에는 총 22개의 정당이 있으며 그 중 주요 정당은 N-VA, OPEN VLD-MR, CD&V-CDH, SPA-PS, ECOLO-GROEN(전통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네덜란드어-프랑스어계의 4개 정당)이다.

2010년 6월 13일 개최된 총선거 결과 플레미쉬 지방에서는 CD&V-NV.A(금번 선거에 2개의 플레미쉬 정당이 결함함)가 브뤼셀과 왈로니아 지방에서는 사회당이 승리하였다.

6.13 선거 결과 각 정당의 하원의원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 NV.A(네덜란드어계 우익 플레미쉬 독립 주창 국수당): 27 석
- PS(프랑스어계 사회당) : 26 석
- MR(프랑스어계 우익당): 18 석
- CD&V(네덜란드어계 기독교사회당) : 17 석
- Open VLD(네덜란드어계 우익당) : 13 석
- SP.A(네덜란드어계 사회당): 13 석
- Vlaams Belang (네덜란드어계 극우당) 12 석
- CDH(프랑스어계 인류당): 9 석
- ECOLO(프랑스어계 환경당): 8 석
- Groen(네덜란드어계 환경당): 5 석
- Lijst Dedecker(네덜란드어계 우익당): 1 석

3) 각 정당의 정치적 성격

- 기독교사회당(CD&V)
 - 1939 년 창당, 네덜란드어 카톨릭계, 전통 보수주의 경향이 짙은 우익계, 국가의 경제사회 문제 개입주의. 플래미쉬 이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정당의 이름을 CVP 에서 CD&V 로 대체
- 인류민주당(CDH)
 - 1939 년 창당, 과거 프랑스어계 기독교사회당이며 기독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류주의로 확대한다는 의미로 기독교라는 단어를 인류로 대체하는 동시에 과거 우익적인 성격에 강했던 것에서 중립으로 전환
- 사회당(SPA)
 - 1885 년 창당, 근로자의 이익보호, 사회보장 등 사회주의 이념이 강한 네덜란드어 좌익당
- 사회당(PS)
 - 1885 년 창당, 프랑스어계 사회당으로 SP 와 동일한 정당 이념을 가지고 있는 좌익 성격의 정당
- 자유민주당(Open VLD)
 - 1992 년 창당, 정부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경제 원칙을 강조하는 네덜란드어 우익당
- 개혁당(MR)
 - 1965 년 창당, VLD 와 유사한 정당 이념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우익당. 최근 '개혁운동'이라 정당 명칭을 바꾸었다. 1993 년 브뤼셀의 프랑스어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브뤼셀 지역에 국한된 FDF 당과 연합
- 환경당(Groen)
 - 1980 년 창당, 자연, 환경주의, 인권주의 및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사회당 보다 좌익성이 더 강한 네덜란드어 정당
- 환경당(ECOLO)
 - 1980 년 창당, GROEN 과 정당 이념이 동일한 프랑스어 환경당
- NV&A(플래미쉬 독립주의당)
 - 플래미쉬 지방의 독립을 주장하는 우익당
- FN, VLAAMS BELANG, Lijst Dedeckers
 - FN, 프랑스어계 극우파 정당. VALAAMS BELANG 과 Lijst Dedeckers 는 네덜란드어계 극우파 정당(플래미쉬 지역의 독립 주장)
- MCC
 - 1998 년 창당, 브뤼셀, 왈로니아의 프랑스어계가 단결, 경제 부흥을 주 목표로 삼았다.

라. 사회보장 제도

벨기에의 사회보장 제도 기원은 1886년 대규모의 파업이 발발한 이후 국가가 공제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18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벨기에에는 근로자와 실업자 간, 직업인과 연금자 간, 건강한 자와 환자 간, 소득자와 비 소득자 간, 양육 자녀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간 연대적 상부 상조 개념을 기초로 점차적으로 사회 보장 제도가 발달해왔으며 그 결과 빈부의 차가 심하지 않고 중산층이 사회 기반을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이다.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에는 전통적으로 연금 제도, 실업 수당, 산업재해 보험, 직업병 보험, 가족 수당, 의료보험, 연간 휴가비가 포함되며, 그 외 극빈자와 고령자 최저 소득 보장, 장애인 수당, 양육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최저 소득 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 봉급 근로자의 사회 보장 제도 재원은 봉급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자의 봉급(gross salary) 대비 각기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 즉, 봉급자는 의료보험이나 연금, 실업 수당 등 국가 사회 보장으로 커버되는 보험을 각기 지불하지 않고 봉급에서 한번에 원천징수 되어 사회보장 관리 기관으로 지불되면 사회보장 기관에서 각 해당 기관으로 배분한다.

사회보장 분담 비율

구분	근로자 분담률(%)	고용주 분담률(%)	총 비율(%)
1. 의료보험			
- 치료비	3.55	3.80	7.35
- 보상비*	1.15	2.35	3.50
2. 실업수당	0.87	1.46	2.33
3. 연금	7.50	8.86	16.36
4. 가족수당	0.00	7.00	7.00
5. 재해보험**	0.00	0.30	0.30
6. 직업병	0.00	1.00	1.00
총 분담 비율	13.07	24.77	37.84

*주1: 병가 2개월부터 사회보장에서 봉급의 일정 비율을 지불함(병가 1개월 휴가 동안에는 고용주가 월급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주2: 상기에서 의미하는 재해보험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보험을 의미함.

자료: 벨기에 노동부(2012년 2월 기준)

이 외에도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7.48%의 할당금(cotisation de modération salariale 이라고 부름)과 고용인 수에 따라 폐업 기금 0.25%-0.29%, 임시 실업과 노령 실업자 기금 0.10%-1.19% 등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 이명박 대통령 벨기에 공식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ASEM 동북아-남아시아(NESA) 조정국 정상자격으로 제 8차 ASEM 정상회의 개최식 연설에서 ASEM 정상회의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기본인식을 표명하고 금번 ASEM 정상회의 주제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아시아 유럽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고,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ASEM 회원국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세계경제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제 1차 본회의에서의 지정발언을 통해 △ 세계경제 현황평가 △ G20 서울정상회의의 소개 △ ASEM과 G20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 1차 본회의에 이어 동일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 업무만찬에 참석하고 ASEM 회원국 정상들은 업무만찬에서 △세계경제위기 극복방안 △ 경기부양책과 재정건전성 문제 △ 금융 안전망 구축△ 금융규제감독개혁 △ 국제금융기구 개혁 △ G20과 협력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 여수박람회 참가

2010년 4월 5-7일간 이브 르 테름 벨기에 총리가 국민으로 방한하여 청와대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12년 여수 박람회에 벨기에가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내년에 맞는 수교 110년 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발전을 도모하며 한국-EU FTA가 조기 서명되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한편, 4월 6일 동인은 서울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벨기에에 초콜렛 공장(Dear Food Europe)을 설립한 JF&B사도 방문하여 동사의 벨기에 투자를 환영했다.

이브 르 테름 전 정부에 이어 엘리오 디 루뵈 현 정부는 현재 여수 박람회 참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 서울에서 2012년도에 개최되는 국제 환경 및 바이오 산업 전시회 참여

AWEX(프랑스어계 왈로니아지방정부 무역/투자 진흥청)는 2012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환경산업전시회(ENVEX)와 9월에 개최되는 바이오산업(BIO KOREA)에 참여하고 11월 중에는 식품공업분야를 중심으로 벨기에 식품업계와 한국식품업계간 협력을 강화키 위해 한국식품업체들과 접촉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GDP(십억 유로)	330	320	342	335	-
1인당 GDP(유로)	32,057	31,341	31,345	32,332	-
실질 성장률(%)	0.9	-2.7	2.3	1.9	0.1
물가 상승률(%)	4.5	1.8	2.2	3.5	2.7
실업률(%)	7.0	7.5	8.3	7.3	7.5
수출(십억 유로)	320.8	315.3	212.3	342.2	-
수입(십억 유로)	317.0	301.7	213.8	331.9	-
외채(백만 유로)	-	1,028,924	1,009,285	1,079,265	-
연평균 환율(유로/달러)	1,408	1,3705	1,357	1.3920	1.3150

자료: 벨기에 중앙은행(2012년 3월), 연방정부 경제기획원(2012년 2월)

나. 주요 경제 정책

1) 경제 기초

벨기에는 금융위기 발발 후 2010년 7월 2일 법규(왕령)를 통해 은행의 부채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은행이 가중 개입되었던 기존의 금융감독기관(CBFA)을 해체하고 동 기관이 수행했던 프리덴셜(Prudential) 감독은 중앙은행이 윤리적 규정을 포함한 은행 비즈니스 규칙 등 은행 규범 수행 감독은 새로이 신설한 FSMA(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 당국)이 수행하도록 했다.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또 다시 발발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바젤 III이 제안되었고 이어 2011년 7월에 EU는 바젤 III이 제시한 대부분의 규정이 포함된 일명 CRD 4(Capital Requirement Directive)라 부르는 별도의 지침을 제안하여 EU회원국간 논의 중이다.

벨기에는 바젤 III 규정이 아직 법규화되지는 않았으나 벨기에 은행들 중 상당 수가 자체적으로 고유자본을 증자했거나 또는 리스크가 큰 상품을 BAD BANK에 모아 놓고 건전한 부문과 분리함으로써 은행 전체가 BAD BANK와 같이 파산의 궁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함으로써 2011년 7월에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에 의해 이루어진 stress tests에서 불합격된 벨기에 은행은 없었다.

2011년 6월에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가 벨기에 은행의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Review")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물론 바젤 III에 따라 증자해야 할 은행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2011년에 들어 벨기에 은행들이 수익성 회복과 더불어 지불능력이 커지고 있으며 벨기에 은행산업이 2009년에 12억 유로의 적자를 냈는데 반해 2011년 6월에는 56억 유로의 수익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리스가 몰고 온 유로존 국가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정책이 실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2012년도 벨기에를 비롯한 EU경제성장은 오히려 후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만 해도 벨기에 실질 경제 성장률은 1.9%의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했으나 2012년에는 잘 해야 제로에 가까운 0.1%에 그칠 것이라고 벨기에 경제기획원은 최근(2월 중) 전망했다.

벨기에 경제는 사실상 최근 3분기 동안(2011년 3,4분기 2012년 1분기)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 경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 즉, 2011년도 전 분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 2분기에 각각 0.9%, 0.3%의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3분기(-0.1%)부터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하면서 4 분기(-0.2%)와 금년 1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고 있다. 벨기에 경제는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라 특히 국제시장의 변화에 민감한데 국제 경제가 둔화 추세인데다가 유로존 부채위기에 대응키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이 실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금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될 것이며 하반기 후반에 가서나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1년 12월 8월에 출범한 신 정부의 우선 정책은 국가재정 쇄신이며 2012년 정부재정적자 목표(GDP대비 2.8%)에 달하기 위해 대부분의 분야에 지출절감, 세제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유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지수가 봉급에 자동 연계되는 전통적 제도는 그대로 고수하면서도 지나친 물가인상으로 봉급이 올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월 말 까지 일시적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을 동결키로 하는 한편, 전력과 도시가스 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전(distribution)가격의 인상도 2013년에, 경우에 따라서는 2014년까지 동결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또한 지금까지 전기나 가스 공급업체와 공급 계약을 계약 기간 만기 전에 변경할 때 계약 건수 당 75유로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금지하는 한편 녹색전력 구매 때 부과되는 환경세(교토기금과 비핵전력기금)는 폐지할 방침이다.

예산 확보 방안의 하나로 최소 법인세 도입 제안도 있었으나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업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조치였던 가상이자제도도 기업이 혜택 받는 이자율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제도 자체는 그대로 고수하여 기업이 받는 타격을 최소화했다.

2) 대외 경쟁력 정책

벨기에 정부는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벨기에와 직접 경쟁 대상국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비한 봉급 인상률이 이들 3국에 초과하지 않도록 봉급인상 억제 정책을 1996년에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봉급인상 억제조치로 봉급인상에 특수 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즉, 일반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상품에서 석유제품과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벨기에에는 여타 국가와는 달리 해마다 물가지수(특수 물가지수)가 봉급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 대상국보다 봉급 인상률이 높아 점점 대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나 봉급인상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분야다. 이는 벨기에가 전통적으로 사회당(특히 남부 왈로니아 지방)이 집권당으로 군림하고 있는데다가 노조의 입김이 세기 때문이다.

또한 봉급 수준은 고용 시장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벨기에에서는 근로자의 봉급인상 조율이 정부의 개입 없이 고용주와 노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 가이드라인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으로 국가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Made in Belgium”이라는 명칭 하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벨기에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와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 성장률 : 2011년 1.9%, 2012년 0.1 %

벨기에 경제기획원은 최근(2월 10일) 2012년 벨기에 실질 GDP 성장률이 0.1%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 기관은 작년 9월의 2012년도 경제 전망에서 금년 경제성장률이 0.8%에 달한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 이후 세계 경제의 둔화 현상과 벨기에 정부의 긴축 정책의 영향을 감안, 0.1%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2) 민간 소비 : 2011년 0.8%, 2012년 -0.1%

2011년에 민간 소비는 가계 실소득의 증가와 동시에 세금 안정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 추세에 따른 불안감으로 소비보다는 저축경향을 보여 민간소비의 신장은 0.8%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회복 기미가 더욱 희미한데다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실 가계 소득이 감소(-0.1%)할 뿐 아니라 과세부담까지 가중되어 민간소비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수출입(상품+서비스)

□ 수출 : 2011년 5.0%, 2012년 0.5%

벨기에 수출(상품과 서비스 포함)은 2010년에 세계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10.6%의 비율로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했는데 반해 2011년부터 계속 부진해져 2012년에는 거의 제로 수준인 0.5%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벨기에 경쟁은 벨기에의 고임금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봉급에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제도의 폐지와 급여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 수입 : 2011년 5.4%, 2012년 % 0.7%

수입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소비재는 물론 산업용 원자재, 중간재, 투자재의 수입이 모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물가 : 2011년 3.5%, 2012년 2.7%

2011년 인플레이션율은 3.5%로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특히 석유제품의 가격과 동시에 원자재 가격까지 오름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석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본적인 소비제품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나 정부의 긴축조치 가운데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소(담배가격 인상) 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인플레가 작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료: 벨기에 경제기획원 2012년 2월, 벨기에 중앙은행 2012년 3월 전망)

5) 주요 현안 사항

□ 한. EU FTA 발효

한. EU FTA 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2009년 7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9년 10월 15일 가 서명 후 2010년 10월 6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져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 동향

GDP 대비 벨기에 산업의 비중(부가가치 창출기준)을 보면 제조업이 14.7%에 지나지 않고 건설부문이 4.6%, 서비스부문이 69.1%이며(이중 교육과 공공 서비스가 12.9%) 농·임·수산업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0.6%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건축업(4.4%)을 제외하면 화학(4.2%)과 기계제조(3.6%)가 가장 발달한 산업이고 그 다음 식품(2.5%), 철·비철금속(2.7%)산업이며 그 외 제지, 출판 산업(1.4%), 비금속(0.9%), 섬유·신발(0.8%) 순이다. 섬유와 신발 산업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다.

벨기에는 비 상품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로서 비 상품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3%이며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대와 그 외 서비스업이 2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도·소매업이 11.1%, 운송 및 통신 서비스는 6.6%를 차지한다. 의료 및 사회 분야의 서비스는 6.3%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금융 서비스는 5.1%를 차지 하여 건축업과 화학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벨기에 주요 산업

1) 기술 산업

벨기에 기술산업 협회(AGORIA)는 우주·항공, 자동차, 자동화, 엔지니어링, 기계·전자, 안보, ICT, 금속변형 분야를 통합하고 있는 분야로 벨기에 1위 산업이다

- 경제 비중
 - 고용 : 279,048명
 - 매출액 : 873억 유로
 - 수출 : 생산의 75%
 - 투자 : 21억 유로
- 기업 구조
 - 중소기업이 주류(80%)

벨기에 기술 기업 가운데에는 Caterpillar, Atlas Copco, Case New Holland, Bombardier 등 다국적 기업들이 있지만 약 80%가 종업원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기계 산업

기계 산업은 기계(Machine) 및 장비(Equipment), 기기(Apparatus) 및 부품(Compo nets), 하청 및 서비스의 3개 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산업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기계 장비
 - 기계-기구 : LVD
 - 섬유 기계 : Picanol, Van de Wiele
 - 농기구(농산물 재, 원예 및 사육) : Case New Holland Belgium, Packo, Inox, Roxell
 - 중장비 : Caterpillar, Komatsu, Euro Daewoo
 - 철도 및 전철 시설 : Alstom, Bombardier
 - 특수 공업용 시설 : FMC, Bekaert

- 기기 및 부품
 - 역학적, 공기 압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Atlas Copco, Ensival,
 - 냉각 기기 : Daikin, ABB, Baltimore
 - 소방 기술(Fire Technologies) : Ansul, Sicli, Siemens, Cerberus, Somati,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 Schindler, Kone, Otis, Thyssen
 - 트랜스미션: Spicer, New Holland Tractor, Hanssen Transmission, Twin disc, Watteeuw
 - 특수 기기 및 부품 : ABC, CMI, Femont
- 하청(OEM) 및 서비스
 - 하청 : Asco
 - 기술 감독 및 인증 : AIB Vincotte, SGS)
 - 엔지니어링
 - 수리 및 보수 : Antwerp Shiprepair

□ 현황 및 전망

벨기에 기계 산업(HS 84, 85)은 2010년에 461억 불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고 수입은 5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EU 역내 수입이 총 수입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외 수입은 1/3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역외 수입국 중 3대 수입국은 중국(429.3억 달러, 8.6%), 미국(332.3억 달러 총 수입의 6.6%), 일본(204.9억 달러, 4.1%)이며 한국은 약 4억 불을 수출하여 약 0.8%를 점했다.

벨기에 기계 산업의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8	2009	2010
수출	57,402	42,711	46,108
수입	63,431	46,862	50,168

자료: World Trade Atlas Belgium

나) 벨기에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에 직접/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고용원 수는 약 36만 명으로 벨기에 총 고용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하청 산업(부품생산, 물류, 엔지니어링, R&D, ICT)에 종사하는 고용 수는 약 2만5천명에 달하는 주요 산업이다. 자동차 생산(유틸리티 포함) 규모는 2010년에 528,996대였고 이중 95%가 해외로 수출되었다. 수출 대상국은 상위 국가 순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이다.

벨기에에는 자동차 자체 브랜드 생산은 없으나 일찍이 Ford, Volvo, Audi, Opel(GM의 유럽 브랜드 명)이 진출하여 이들 4개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다. 여타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 간 벨기에 내 자동차 조립 제조 활동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벨기에에서 생산된 자동차 대수는 100만 대에 달했었으나 그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최근 2003-2010년간 벨기에에서 제조된 자동차 대수를 보면 2003년에 895,109대, 2004년에 881,929대, 2007년에 789,674대, 2008년에 680,149대, 2009년에 524,595대, 2010년에 528,996대로 7년 사이에 41% 감소했다. 한편, 2011년 말까지 인수할 업체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트워프에 있는 벨기에 Opel 공장이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벨기에 통신 및 가전시장

벨기에 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에 벨기에 가정의 79%가 1-2개 PC를 소유하고 77%가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으며 이중 광대 역 접속이 98%에 달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91%가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장으로 벨기에 가전제품 시장에 변화가 오고 있다. 디지털 사진기, DVD, BLU-RAY 등 가전기기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통신기기로 대체되고 있어 앞으로 가전제품분야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중 벨기에 시장에서 1.2백만 피스(375 백만 유로)의 스마트 폰이 판매되어 2010년 대비 80% 증가한 한편 태블릿은 초기 시장 단계이지만 35만 대가 판매되어 2010년 대비 무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생활 필수품이 아닌데다가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며 정부가 소비자 구매력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긴축정책 조치가 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금년 판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문업체(GFK)는 보고 있다.

2010년 벨기에 가전제품시장이 물량으로는 2.4% 증가했는데 금액으로는 0.3%(약 11.9억 유로)감소했다. 이 같이 판매량에 비해 판매액이 감소한 이유는 가전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가전제품별 시장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TV는 2011년에 약 885,000 대가 판매되어 2010년 대비 21,000대가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는 특히 스마트 TV의 도래로서 대체 구매 때 재래식 TV 대신 스마트 TV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판매된 TV가운데 약 292,000대가 스마트 TV로 총 TV시장의 1/3을 초과했다. 벨기에에 있는 프랑스 가전제품 체인인 FNAC의 판매책임자에 따르면 응접실용 TV로는 고가 TV, 제2, 제 3의 TV로는 저가 TV를 구매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디지털 카메라 도래 이후 얼마 전 까지 동 유형의 카메라가 인기 구매되었는데 최근 카메라 기능이 우수한 스마트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구매가 줄고 그 대신 리플렉스(reflex) 카메라가 선호 구매되는 경향이다.

DVD/BLU-RAY 판매는 저조해지는 경향이다. TV 판매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DVD/BLU-RAY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TV DECODER의 용량이 커져 TV 프로그램을 쉽게 저장할 수 있고 또한 VOD(Video On Demand)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업체는 설명한다.

그러나 2012년도 가전제품 시장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여름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올림픽 경기와 유로 축구 등 국제적 이벤트를 기해 TV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유통업체들이 있는 GFK(IT분야 컨설팅 및 시장조사업체)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된데다가 특히 기술적으로 신형 제품이 출시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전제품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Media Mart Belgium(독일 가전 유통체인 벨기에 지사)는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의 판매마진이 작은 상황에서 조금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간,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가전제품 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2) 화학산업

2010년에 벨기에 화학산업의 생산은 2009년 대비 18% 증가하고 매출액이 522억 유로에 달해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벨기에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고용 수는 약 90,000명으로 제조업 총 고용의 17.5%를 점하여 전자, 전기, 기계산업 다음의 벨기에 2위 산업으로서 249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내어 벨기에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transit를 포함하여 2010년에 화학산업의 수출액은 1,070억 유로에 달했음).

2010년에 화학산업의 총 R&D 투자액은 2010년 24.3억 유로에 달하고 이 중 기업 내(intra-muros) R&D 활동에 15억 유로가 투자되어 벨기에 총 민간분야 intra-muros 투자의 22%를 점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화학분야의 R&D 투자는 연 평균 8%의 비율로 증가했다.

인구 면에서 볼 때 벨기에는 EU의 2.1%에 지나지 않는데 반면 벨기에 화학 및 생명공학 산업의 생산 매출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를 넘을 만큼 화학산업이 발달한 국가다.

3) 철강 산업

□ 산업 동향

벨기에 철강협회(STEELBEL)에 따르면, 2010년 벨기에의 총 철강 생산 규모는 7,973kt으로 '09년 대비 41.5% 증가했으며 불황 전인 2008년에 비하면 여전히 25.3% 감소한 수준이다.

2010년 말 철강 산업 종사자 수는 14,274 명으로 2009년에 비해 1% 감소했다. 매출 규모는 88억 유로, 부가가치 창출 액은 17억 유로, 수출은 61.5억 유로를 기록하여 2009년 대비 각각 40%, 13%, 31% 증가했다. 수출의 88%가 EU 역내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역외시장 수출은 사실상 12%에 불과하다.

2010년도 품목별로 생산 추이를 보면 crude steel은 총 7,973 천 톤이 생산되었는데 이중 oxygen converter 5,177 천 톤, electric furnace 2,796 천 톤으로 2009년 대비 각각 57%, 19% 증가했다

벨기에 철강 제품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년도	Crude steel		총계
	BOF	EAF	
2004	8,812	2,885	11,697
2005	7,776	2,644	10,420
2006	8,172	3,458	11,631
2007	7,147	3,545	10,692
2008	7,407	3,265	10,673
2009	3,289	2,347	5,635
2010	5,177	2,796	7,973

자료: 벨기에 철강협회(Belgian Steel Federation 2011년 6월)

4) 그린에너지 산업

벨기에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에너지 사용 비중이 13%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삼고 부문별 그린에너지 비중은 난방과 냉각분야에서 11.9%, 전력분야에서 20.9%, 운송분야에서 10.14%에 달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10년 벨기에의 전력 소비량 가운데 그린에너지 사용 비중은 거의 6%에 달했는데 향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산업협회(AGORIA)와 은행협회는 2010년 말 다 방면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리스트를 마련하여 가정과 기업들이 리스트 분야에 투자 시 대출을 용이화하기로 했다.

벨기에 전력 생산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Electrabel은 464MW의 재생에너지 생산력을 보유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그린전기량은 1,859 GWh으로 약 53 만 가구에 그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Electrabel은 앞으로 2015년까지 백만 가구에 그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기 위해 추가로 600 MW의 재생에너지 생산력 설비확보에 투자할 계획이다.

□ 풍력

2010년에 벨기에 풍력 총 생산력은 901MW에 달해 2009년 대비 57% 증가했는데 이는 2008년에 벨기에 북해에 300 MW 규모의 Offshore 풍력발전소가 완공되고 2009년에 100개의 풍력발전 시설이 신설된 데 기인한다. 현재 풍력 발전 전기량으로 약 6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공급할 수 있어 연간 100만 톤의 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에 풍력발전 전력이 총 전력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15%, 2050년에는 50%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풍력업계는 보고 있다. 벨기에의 풍력 생산업체는 Turbowind, Power-technology, Center, SPE, BELMCO, Greenelec, Societe Duba 등 6개 업체가 있다.

□ 태양광

2009년 중 벨기에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 생산력은 292 MWp로 2007년 대비 무려 484% 증가했다. 한편 2009년 기준 태양광 에너지 총 생산력은 363 MWp이며 이는 2008년의 71 MWp 대비 411% 증가한 것이다. 벨기에의 태양광판 생산업체는 Photovoltech, Issol 등 2개 업체가 있다.

□ 바이오가스

2009년에 벨기에 폐기물 매립장과 폐수 처리장, 기타 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 가스량은 124.7 ktoe로 2008년 대비 42.4% 증가했으며 바이오 가스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은 456.6 Gwh에 달해 2008년 대비 23.4% 증가했다. 바이오 가스 생산업체로는 Xylowatt사와 SPE사가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 EU의 FTA 정책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 국가와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 국가와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EU FTA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 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적인 모델은 없으며 FTA마다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2010년 10월 6일 공식 서명되었다.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향후 5년간(2011-2016년) EU 집행위의 무역정책 내에서 앞으로 인도와 MERCOSUR, 싱가포르, 캐나다와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EU FTA는 브뤼셀 ASEAM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명박 대통령과 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담 상임의장,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 등이 임석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간에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었다. EU와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개시돼 2009년 7월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2009년 10월 15일에 가 서명 됐다.

한-EU FTA는 당초 2011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탈리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6개월 연기돼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이 발효는 잠정적 발효이기는 하나 정식발효와 거의 차이가 없다. 정식발효는 27개 EU 회원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한-EU FTA에 대해 EU 측에서는 가장 야심 찬 무역협정이자 아시아 국가와는 첫 번째 FTA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양측 간 교역을 증진시킬 것이며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유럽의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인 동시에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한-EU FTA는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는 중미와 남미와의 경제협력협정 추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3월 14-18일 집행위는 MERCOSUR와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갖고 3월 18일에는 중미 국가들(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의 협력협정에 서명하여 협정문 수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페루와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문이 2012년 2월 16일 EU 대외무역장관이사회에서 서명되어 EU의회의 승인 절차만 남아있다. EU의회는 2012년 9월 중 EU-페루/콜롬비아 FTA 협정문을 표결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U의회에서는 환경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통 협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 예상되어 사실상 협정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U-페루/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두 지역간 교역에서 약 5억 유로에 달하는 관세가 절감될 수 있으며 두 지역간 교역 활성화로 콜롬비아와 페루의 GDP가 1%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관세와 기술장벽 철폐, 서비스부문 개방, 공공시장 개방, 지리적 라벨보호 등이다. 특히 페루와 콜롬비아는 동 협정에 따라 EU의 기본적 사회 및 환경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규정도 수립해야 하므로 이들 분야에 있어서도 발달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 초기에 탈퇴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앞으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EU측은 말하고 있다.

애초 EU는 Andean(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원했으나 협상 초기에 볼리비아와 에콰도르가 탈퇴하여 결국 페루와 콜롬비아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한 것이다. EU는 Andean의 2위 교역국(1위는 미국)인 한편 Andean이 EU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2010년 기준)차지, 미미하지만 EU로서는 페루와 콜롬비아와의 FTA가 두 국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미 대륙전체와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0년 3월 3일에 개시된 EU-싱가포르 FTA 협정 협상은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집행위 대외무역담당 Karl de Gucht 집행위원과 싱가포르정부의 LIM 무역/산업 장관은 상품/서비스 상호 시장 접근, 지식재산권보호, 원산지규정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데 이어 2012년 1월 6일 9차 협상에서, 또한 오는 4월 1일에 프놈펜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심층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

2011년 11월까지(2012년 3월 14일 현재 발표된 통계) 벨기에 수출은 3,158억 유로에 달해 2010년 동기 대비 10.8%증가했는데 물론 11월까지의 수출현황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0년도(연간 기준 16.9% 증가)에 비하면 증가율의 감소 추이를 시사한다. 동 기간 동안 무역 수지는 97.7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통적 무역 흑자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근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벨기에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촉진하는 주 이유 중 하나는 고 임금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3대 경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비 임금 인상 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물가지수의 임금 연계제도 때문에 경쟁국 대비 임금인상이 항상 높다.

지역별 수출비중을 보면 유럽이 78%, 아시아 10.3%, 미주 7.1%, 아프리카 2.8%, 오세아니아 0.6%, 기타 1.3%로 유럽 수출이 벨기에 수출을 좌우하고 있다(2011.1~11월 기준).

벨기에 주요 수출 품목은 화학/의약품(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3.4%), 광물(대부분 석유(11.5%), 기계 및 장비 (11.0%), 운송기기(9.5%), 철강제품(8.9%),플라스틱제품(8.5%)이며 이들 품목이 총 수출의 72.8%를 차지한다. (2011.1~11월 기준)

벨기에 수출

(단위: 백만 유로, %)

연도	금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2005	269,763	8.8
2006	292,239	9.0
2007	315,311	7.9
2008	320,806	1.7
2009	265,321	-17.3
2010	310,153	16.9
2011.1-11	315,843	10.8

자료: 벨기에 연방무역청(2012.3)

나. 수입

2011년 11월까지 3,061억 유로가 수입되어 2010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2011년에 수입이 현저히 증가한 품목은 기름 등 유제품(37.8%)과 석유제품(36%),귀금속(주로 다이아몬드 24.6%), 철강제품(15.3%) 1%)이었다.

벨기에 주요 수입국은 역시 유럽으로 74.4%를 차지하고 그 다음 아시아 13.8%, 미주 8.9%, 아프리카 2.4%, 오세아니아 0.6% 순이다. 미주와 아시아와의 교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무역수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역별 수출입 비중과 수입/수출 비율(2011.1~11월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지 역	수 출		수 입		수입 대비 수출 비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유럽	246,045	77.9	227,602	74.4	108.2
아시아	32,519	10.3	42,141	13.8	77.2
미주	22,549	7.1	27,159	8.9	83.0
아프리카	8,914	2.8	7,459	2.4	119.6
오세아니아	1,809	0.6	1,689	0.6	107.1
기타	4,008	1.3	26	0.0	15,299.1
총 계	315,843	100.0	306,071	100.0	15,936

자료: 벨기에 연방무역청

2011년 들어 11월까지 벨기에는 3,061 억 유로에 상당하는 상품을 수입하여 작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에 기여한 상품 카테고리는 기름/지방 유제품(49.8%), 귀금석(다이아몬드, 41.3%), 석유제품(36.4%), 여타 상품(26.9%), 철강제품(20.2%)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화학/의약품(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 광물(주로 석유제품 17.7%), 기계 및 장비(12.5%), 운송기기(10.1%), 철강제품(8.2%), 플라스틱 제품(5.4%) 등이다.

벨기에 연도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연도	금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2005	256,119	12.1
2006	280,328	10.0
2007	301,696	7.6
2008	317,044	5.1
2009	252,357	-20.4
2010	294,217	16.1
2011.1~11	306,071	13.8

자료: 벨기에 연방무역청(2012.3)

2. 한국과의 교역동향

우리나라가 2011년 동안 벨기에에 수출한 총액은 22.6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1.2% 증가하여 비교적 활발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1월에 들어 대 벨기에 수출이 약 174백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약 1% 감소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벨기에 경제가 최근 3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의 침체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한 데에 기인한다.

한국의 대 벨기에 연도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

	2009	2010	2011	2012(1월)
수출	2,189(-32.2%)	2,028(-7.3%)	2,256(11.2%)	174(-1.0%)
수입	893(-32.1%)	1,155(29.4%)	1,450(25.6%)	104(-15.5)

자료: KITA

2011년에 한국이 벨기에에 수출한 10대 주종 품목은 건설중장비, 승용차, 윤활유, 이연도강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개별소자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합성고무, 기타석유화학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이 대 벨기에 총 수출의 약 67.6%를 점했다.

한편, 같은 해 한국이 벨기에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10대 수입 품목은 기타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합성원료, 의약품, 중후판,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가축육류, 천연가스, 합성고무, 열연강판 등 건설중장비, 승용차,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원료, 가축육류, 천연가스, 합성고무, 열연강판 등으로 이들 품목이 총 수출의 약 54.8%를 점했다.

건설 중장비와 자동차 부품 및 철강 제품은 순수하게 벨기에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수출이라기보다는 일부는 벨기에 시장에 공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유럽 시장에 공급된다. 두산 인프라코어 (제조 포함)와 현대 모비스(자동차 부품), 대경(철강)은 벨기에 시장뿐 아니라 유럽 시장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 센터를 벨기에에 두고 있다.

그 외 VCR, 핸드폰, 라디오 카세트, 냉동 냉장고, 전자 레인지,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소비재 전자 제품이 벨기에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나 네덜란드를 통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벨기에 수출로 집계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대 벨기에 주요 수출 상품

(단위: 백만 달러, %, 누계)

품목명(MTI)	2011		2012.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수출	2,255	11.2	174	-1.0
건설장비(7521)	490	64.5	45	-10.5
승용차(7411)	258	114.3	27	221.4
윤활유(1336)	199	113.4	18	10.5
아연도강판(6134)	139	45.9	10	-21.1
합성수지(2140)	115	3.6	7	-7.2
자동차부품(7420)	92	13.2	4	-35.8
개별소자반도체(8313)	78	282.8	2	-49.9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56	15.8	3	-35.3
합성고무(2150)	49	107.4	3	36.8
기타석유화학제품(2190)	49	-1.5	1	-85.0

주: 금액 순(2011년 기준)

자료: KITA

한국의 대 벨기에 주요 수입 상품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명(MTI)	2011		2012.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수입	1,450	25.6	104	-15.6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139	12.8	7	-59.3
석유화학합성원료(2130)	132	50.0	10	13.7
의약품(2262)	128	15.6	7	-11.8
중후판(6131)	86	45.2	11	46.5
합성수지(2140)	71	59.4	8	62.4
기타석유화학제품(2190)	58	85.4	6	55.4
가축육류(0221)	55	29.8	5	-10.3
천연가스(1340)	50	83.0	-	-
합성고무(2150)	44	5.9	1	-60.7
열연강판(6132)	31	31.7	4	24.4

주: 금액순(2011년 기준)

자료: KITA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 지고 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한-EU ETA 협정과 EU의 수입규제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한-EU FTA의 핵심 내용은 원산지 규정에 기초한 관세철폐다. 즉, 한국산 상품의 EU 수출에 있어서 협정 발효 3년 내 99%에 해당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한편 EU상품의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3년 내로 96%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EU의 공정거래 원칙을 위배하면서 EU에 수출된다고 EU 당국이 판정한 상품은 EU의 수입규제조치를 받는다. 즉, 한-EU FTA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한국산이나 EU 산 상품이 한국 또는 EU의 수입규제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를 말한다. .
- EU 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 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부터 45 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2년 3월 15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다음과 같은 품목이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주 : 한국산 PET 칩은 2012년 2월 28일로 반덤핑 규제가 종료되었다.

한편 EU 는 이사회 이행규정 102/2012 를 통해 중국산과 우크라이나산 강철 로프와 케이블에 대해 지금까지 부과되는 기존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종료되는 시점에서 더 연장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산 강철 로프와 케이블이 모로코와 한국을 경유해 EU 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로코와 한국에서 수출되는 일부 해당 품목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 년 2 월 10 일부터 한국산 강철 로프와 케이블에 반덤핑 관세 60.4%가 부과된다. 즉, 한국에서 EU 로 수출되는 일부 카테고리 제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가 한국이든 아니든 간에(즉 한국산이든 한국산이 아니든) 상관없이 중국산과 같이 반덤핑관세 60.4%가 부과되므로 우리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에서 EU 로 수출되는 제품 가운데 반덤핑 대상의 강철 로프와 케이블의 Taric code 와 제품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731210 81 13: steel ropes, and cables(including locked coil ropes), not coated or on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with a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ing 3mm but not exceeding 12mm consign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 2) 731210 83 13: steel ropes, and cables(including locked coil ropes), not coated or on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with a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ing 12mm but not exceeding 24mm consign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 3) 731210 85 13: steel ropes, and cables(including locked coil ropes), not coated or on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with a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ing 24mm but not exceeding 48mm consign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 4) 731210 89 13: steel ropes, and cables(including locked coil ropes), not coated or on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with a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ing 48mm consign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 5) 731210 98 13: other consign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참고: Taric code 의 앞에서 6 자리까지는 HS Code 와 동일함.

단, 아래 한국 업체의 제품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	회사	Code additionnel TARIC
대한민국	(주)보성선재	A969
	(주)청우제강	A969
	씨에스	A969
	(주)코스모 와이어	A969
	(주)대흥산업주식회사	A969
	DSR 제강(주)	A969
	고려제강	A969
	만호제강(주)	A969
	(주)신한제강	A969
	쌍용선재(주)	A969
	영흥철강	A969

5. 관세제도

가. 개요

EU 회원국으로서 EU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벨기에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고 있다.

5)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공동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크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마크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93/68/EEC
폭발 제품(Pyrotecnic articles)	2007/23/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효율규정	92/42/EEC, 93/68/EEC, 2004/8/EC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98/79/EC, 2000/70/EC, 2007/47/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93/42/EEC, 93/68/EEC, 2007/47/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2009/23/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93/68/EEC, 93/95/EEC, 96/56/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여가용 선박	94/25/EC, 2003/44/EC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측정기기	2004/22/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한다)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1년 3월말 기준 24개 품목 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척용 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 에코라벨 기준 제정 중인 품목

- 건물
- Ecolabel-Eup project(laptops, desktops, lighting, washing machines, refrigerators)
- Imaging equipment
- Printed paper
- Toilets
- Taps and showerheads
- Heating systems
- Laundry detergents, Detergents for dishwashers for professional use
- Newsprint

다. 에너지 라벨

EU는 1992년부터 에너지 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3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에너지 라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2011년 11월 30일부터 TV에도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EU는 관보를 통해 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법규(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No 1062/2010)를 공식 발표하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대해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되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기로 한 것은 기존의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시행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초기에는 A 등급이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TV 중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규정에 나타난 TV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상향 조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단계(2013년 12월 31일까지)
 - A, B, C, D, E, F, G의 7등급이 적용. 단,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A+ 또는 A++, A+++기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합성을 입증한 후 A+, A++, A+++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 2 단계(2014년 1월 1일부터)
 - 최고 등급 A+부터 최저 F까지 7등급으로 분류. 따라서 G등급이 없어지는데, 이는 G등급에 속하는 저에너지 효율 제품은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단계(2017년 1월 1일부터)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F 등급은 없어진다.
- 4 단계(2020년 1월 1일부터)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E 등급은 없어진다.

최고 등급 초록색 - 중간 등급 노랑색 - 최하 등급 빨강색으로 이어지는 7개 등급별 색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 등급의 경우 현재는 초록색이나 상기와 같이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랑색이 될 것이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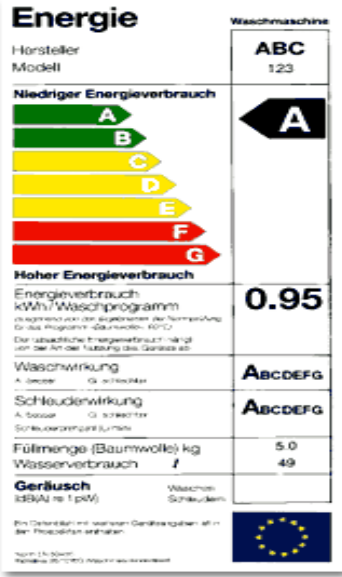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dena)/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 개요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 에너지 라벨링 지침 (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개요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개요 -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 기관 - 스위스 에너지부 (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라. 위험물질 사용 제한

최근 EU 는 인체와 환경에 위험한 물질의 사용 금지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곡물·식물보호를 위한 제초제로서 사용을 허용해 왔던 cinidon-ethyl 의 허용 갱신제도를 완료하여 EU 에서는 실질적으로 2012 년 10 월 1 일부터 이 물질을 포함한 제초제 판매가 금지되는 한편 살초제로 사용되는 2-naphtyloxyacetic acid 는 2011 년 11 월 28 일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었다.

EU 에서 cinidon-ethyl 은 91/414/EEC(1991.7.15.) 지침 Annex I 에서 식물보호용 물질로 일정 조건 하에서 2012 년 9 월 30 일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한편, EU 집행위는 91/414/EEC 의 수정 지침인 2010/77/EU(2010.11.10)지침을 통해 cinidon-ethyl 사용 허용 신청자들이 기술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연장키로 했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에 접수된 cinidon-ethyl 사용 허가 신청 건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행위는 2010/77/EU 지침에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지 않고 2012 년 9 월 30 일 자로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EU 회원국은 2013 년 3 월 31 일까지 cinidon-ethyl 판매와 유통을 허용할 수 있으며 2014 년까지 처분, 창고보관과 재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Cinidon-ethyl 의 IUPAC 명: 9Z-ethyl 2-chloro-3-[2-chloro-5(cyclohex-1-ene-1, 2-dicarboximidi) phenyl] acrylate)
- CAS No: 142891-20-1
- CIPAC No: 598

EU 는 일정 조건 하에서 살초제로서 2-naphtyloxyacetic acid 의 사용을 허용해 왔으나 동 제품의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결국 2011 년 11 월 29 일부터 동 물질의 사용이 EU 에서는 금지되었다.

마. 식품라벨 규정 강화

2011 년 7 월 6 일 EU 의회는 2 차 독회에서 현행 기존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안을 채택했다. 신규 식품 라벨 법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 때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현행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이 신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키 위한 것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 소비자들이 한 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함.
 -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 당 또는 100ml 당으로 표시되어야 함.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음.
- 알레르기성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표시해야 함.
 - 현행 EU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을 포함한 모든 성분들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해당 알레르기 성분(들)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함. 이 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 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의회의 요구로 신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하여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 이 조항에 대한 이행 법규는 집행위가 신 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에 마련할 것임.
 - 또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신 규정에서 나열된 품목 이외 여타 다른 카테고리의 식품(재료로 사용된 고기, 우유 또는 비공정 식품) 까지 확대될 것이나 확대하기 전에 집행위는 그러한 규정의 이행 가능성(feasibility)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의 영향을 조사,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에 귀결할 때 확대를 결정할 예정임.
- 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 신 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 한편,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의 경우,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뚜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함.
 -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함.
- 일단 EU 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 년 내로 동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함. 단, 영양가(nutrition values) 관련 규정 조항은 5 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함.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 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산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벨기에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 받는 방법이다. 유럽 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자가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 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현재 EU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보호지역의 범위에 따라 회원국에 국한된 방법과 EU 전체 차원에서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즉 보호범위를 회원국에 국한하려면 해당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유럽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원천에 있는 유럽 특허청(EPO)에 출원하여 유럽전역에 걸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특허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되었으며 38개 유럽 회원국(27개 EU 회원국과 11개 여타 유럽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 출원할 수 있다. EPO가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 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치 않다. 즉, 대부분의 EPC 협정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특허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하며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특허 텍스트는 평균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현재 텍스트 한 장당 번역비가 평균 75유로-85유로임을 감안할 때 한 언어 번역비만도 1,500 유로가 넘게 드는데다가 대부분의 회원국은 자국 내 접촉 포인트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대표인 서비스 용역 비용이 추가되고 이외 드는 여타 부수비용을 합하면 EU 13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데 드는 비용은 12,500 유로에 달하고 27개 전체 EU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32,000 유로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특허권 유지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엄청난 유럽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유럽국가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2008년에 일명 런던 협정이라는 정부간 협정을 맺고 협정국간 특허 내용의 자국어 번역본 요구를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함으로써 특허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비협정국이 자국어 번역본을 요구되기 때문에 절름발이 제도라 할 수 있다

○ 런던 협정 가입국

-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유럽 특허제도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유럽특허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자국 언어로 번역될 것을 주장하여 지금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이태리와 스페인을 제외(이 두 회원국은 여전히 자국어 번역을 주장함)한 EU공동 특허제 도입에 마침내 파란 신호등 켜 졌다. EU 경쟁이사회가 그 동안 공용언어와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보여 왔던 이태리와 스페인을 제외한 채 EU 공동 특허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유럽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발효에 들어간다.

앞으로 특허출원 행정 간소화와 비용 절감(80%까지 절감)으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태리와 스페인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EU 공동 단일특허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 다시 각기 상이한 자국의 인정 절차와 자국어 번역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되고 R&D와 기술혁신 분야의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EU 경제성장에 활성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 EU 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음. 현행 유럽 특허제도와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 밟을 필요 없음.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 즉 유럽 특허청(EPO :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여 동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 (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유럽 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함.
- 이 같은 단일특허만이 EU 25 회원국에서 동시에 라이선스, 기술이전, 무효화될 수 있다..
- 비용: EU 공동 단일특허는 기존 유럽특허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럽 특허청에서 EU 단일특허를 관리하며, 출원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에는 기존 유럽특허와 동일하나 소위 말하는 특허권 부여 후 비용(post-grant costs)이 대폭 절감될 것임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짐. 즉 EU 단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 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임. 현행 유럽특허의 제소 시스템은 해당 특허권을 인정하는 모든 국가 법원에 병행하여 제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의 결여될 뿐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이 큰 결점이었음.

다. 상표권

벨기에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마.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재 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 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 하는 수입 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한다. 벨기에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벨기에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수입 신고는 수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 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벨기에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통관절차 흐름도

출항→ 입항→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물품 보세 구역 반입→ 장치 확인→ 수입 신고→ 심사→ 물품 검사→ 수입 신고 관리→ 관세 등 제세 납부

2) 구비 서류

출시 및 소비(통관을 의미) 신고 때 수입상은 벨기에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서(신고서 양식 6,7,8과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B)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수입신고서와 더불어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화증권) 부분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부분,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나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1%)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 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 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 최근 상품 위조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강화

상품 위조와 지식재산권의 해적 행위 단속과 관련된 벨기에 신규 법(2007년 5월 15일 법)이 2007년 10월 3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위조 상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도 위조 상품 구매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규는 상품 위조와 해적 행위에 대한 EU법을 벨기에 국내 시행 법으로 옮긴 것이며 동시에 1879년에 제정된 상표(브랜드) 위조 법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신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벌과금 강화

- 브랜드 위조의 경우, 최대 벌금이 구법에서는 11,000유로였는데 이제는 100,000 유로로 대폭 인상되고 징역형도 6개월에서 3년으로 가중됨. 또한 위조 상품 행위에 관세법까지 위반하면 최대 500,000 유로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함.

○ 경찰, 세관, 경제부의 단속 권한 강화

- 신규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 브랜드 소유자 등 이해 당사자의 제소가 있어야만 경찰이나 세관, 경제부 소속 검사원들이 정당하게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신규 법에 의해 지금부터는 이해 당사자들의 제소가 없어도 경찰, 세관, 경제부 소속 검사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사실상 세관은 신규 법이 발효되기 전 수년 전부터(2003년) 위조 및 해적 상품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재량으로 위조 상품 및 해적 상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 위조 및 해적 상품 유입 방지에 세관은 그간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 같은 세관의 단속 권한 확대로 위조 상품의 70%가 세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과 세관원 이외 경제부 소속 검사원(위조 및 해적 상품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특별 교육을 받음)에게도 위조 및 해적 상품 판매 방지를 위한 권한이 부여됨. 이로써 경제부 검사원도 노천 시장이나 상점을 불시 방문할 수 있고 위조 상품을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됨.

○ 위조 및 해조 상품의 범위 확장

- 종전에는 완전한 복제품에 대해서만 형법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 보호를 받는 브랜드와 유사하게 보이는(LOOK-A-LIKE) 복제 상품까지 법적 규제 대상이 됨.

○ 포장 디자인도 규제 대상이 됨.

- 또한 신규 법에서의 위조 및 해적 상품의 정의가 확대됨으로써 브랜드 소유자와 저작권 소유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지금까지 특허, 도안, 디자인을 이용한 위조 상품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음.

○ 형벌 강화

- 위조 및 해조 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형벌로는 벌금형 100유로부터 10만 유로(x 수배 가능)에다 징역형(3개월에서 3년까지)이 추가되고 종전에는 피해자의 제소가 있어야만 법적 조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경찰, 세관, 경제부 검사관에 의해 발각하면 즉각 처벌받음.

4)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 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벨기에 경우 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5) 통관서비스 업체

- KGH Customs Service
 - 주소: Noorderlaan 133 , 2030 Antwerpen
 - 전화: 32-3-541 08 55 / 팩스: 32-3-541 31 94
 - E-메일: scd.be@kghcustoms.com
 - 인터넷: <http://www.kghcustoms.com>
- Balie 21 NV
 - 주소: Noorderlaan 157 2030 Antwerpen
 - 전화: 32-3-546 40 50 / 팩스: 32-3-546 40 59
 - E-메일: info@balie21.be
 - 인터넷 : www.balie21.be
- Belgisch Malische Handelsm n.v.
 - 주소: Besschavingstraat 13 2020 Antwerpen
 - 전화: 32-3-238 23 88 / 팩스: 32-3-237 93 13
 - 인터넷 : www.bmh.be
- Grimaldi Belgium
 - 주소: Brouwersliet 37, 2000 Antwerpen
 - 전화: 32-3-545 94 30 / 팩스: 32-3-541 42 75
 - E-메일: grimaldi@grimaldi.be
 - 인터넷: <http://www.grimaldishipping.com>
- Levaco NV
 - 주소: Santvoortbeeklaan 25, 2000 Antwerpen
 - 전화: 32-3-205 29 40 / 팩스: 32-3-225 00 06
 - E-메일: mail@levaco.be
 - 인터넷 : www.levaco.be

- Patner Logistics
 - 주소: Gare Autoroutière 7110 La Louvière
 - 전화: 32-64-23 69 69 / 팩스: 32-64-22 90 65
 - E-메일: info@partner-logistic.com
 - 인터넷: http://www.partner-logistic.com
- Gosselin Mouving
 - 주소: Belcrownlaan 23, 2100 Deurne
 - 전화: 32-3-360 55 00 / 팩스: 32-3-360 55 79
 - E-메일: moving@gosselingroup.eu
 - 인터넷: http://www.goddelingroup.com
- CEVA Freight Belgium N.V.
 - 주소: Noorderlaan 147, 2030 Antwerpen
 - 전화: 32-3-231 67 77
 - E-메일: sam.jaspers@cevalogistics.com(Mr. Sam Jaspers)
 - 인터넷: http://www.cevalogistics.com
- Geodis Nova Logistics
 - 주소: Romeynsweel3, 2030 Antwerpen
 - 전화: 32-3-540 67 84
 - E-메일: bart.van-zundert@geodis.com
 - 인터넷: http://www.geodis.com

나. 운송

벨기에에는 안트워프(Antwerpen)와 제브리즈(Zeebrugge) 등의 국제항구가 있다.

2010년 안트워프 항구의 general cargo와 bulk cargo를 합한 총 화물 취급 물량은 1억 7천 8백만 톤으로 2009년 대비 12.9% 증가했다. 같은 해 컨테이너 물량은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s) 847만 톤, goods tonnages로는 1억3백만 톤, ro/ro traffic(컨테이너 제외) 물량은 372만 톤을 초과했다.

제브리즈 항구는 특히 5,800대의 자동차를 운반할 수 있는 세계적 시설(car carrier)을 갖추고 있어 연간 30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환적(transship) 되고 있다. 또한 제브리즈 항구는 천연가스 터미널이 있다.

안트워프 항구 규모(2010년)

(단위: 톤)

	unloaded	loaded	총계
Overall traffic	92,872,403	85,295,600	178,168,003
- general cargo	51,041,295	66,351,478	117,392,773
- bulk cargo	41,831,108	18,944,122	60,775,230
Container traffic			
- T.E.U	4,050,887	4,417,588	8,468,475
- good tonnage	44,711,216	57,828,442	102,539,658
Ro/Ro traffic	1,389,533	2,335,248	3,724,781

자료: 안트워프 항구청

- 제브리즈 항구 규모(2010년 기준):
 - 컨테이너 물량: 2,640만 TEU(2009년 대비 9.6% 증가)
 - general cargo: 111만 톤
 - Ro/ro: 1,240만 톤
 - Bulk cargo: 969만톤 (liquid bulk 800만 톤, solid bulk 169 만톤)
 - 총 화물 취급량 : 63.6백만 톤

1) 운송 비용

40 피트 컨테이너 물량의 door to door 이삿짐 운송의 경우 벨기에에서 한국까지 약 5,000 유로가 든다(총 운송비 중에서 인건비가 크게 드는 포장인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운송비가 비싼 편이다).

상품 운송의 경우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 운송의 경우 벨기에와 한국까지 해운 운송비는 약 1,000 유로 정도 든다.

2) 주요 운송 회사(해운)

- Hyundai Merchant Marine Belgium
 - 주소: Keyserlei 5 2018 Antwerpen
 - 전화: 32-3-206 30 00
 - 팩스: 32-3-227 30 87
 - E-메일: anpva@hmm21.com
 - 웹사이트: <http://www.hmm21.com>
- Grimaldi Belgium
 - 주소: Brouwersliet 37, 2000 Antwerpen
 - 전화: 32-3-545 94 30 / 팩스: 32-3-541 42 75
 - E-메일: grimaldi@grimaldi.be
 - 웹사이트: <http://www.grimaldishipping.com>
- Hapag-Lloyd Belgium
 - 주소: Kattenaijk dok Westkaai 21 2000 Antwerpen
 - 전화: 32-3-545 06 11, 팩스: 32-3-541 28 50
 - E-메일: mailanr@hlel.com
 - 웹사이트: <http://www.hapag-lloyd.com>
- Antwerp Freight Agencies(Broekman Logistics)
 - 주소: Noorderlaan 133 2030 Antwerpen
 - 전화: 32-3-201 96 15 / 팩스: 32-3-227 16 64
 - E-메일: info@broekman-group.be
 - 웹사이트: <http://www.broekman-group.be>

- Burger port Agencies
 - 주소: Stijfserlruï 44 2000 Antwerpen
 - 전화: 32-3-202 62 63, 팩스: 32-3-202 62 63
 - E-메일: tramp@burger.be
 - 웹사이트 : www.royalburgergroup.com

- Barwil Benelux
 - 주소: Bataviastraat 19 2030 Antwerpen
 - 전화: 32-3-206 95 80, 팩스: 32-3-227 34 44
 - E-메일: barwil.Antwerp@barwil.com
 - 웹사이트: http://www.barwil.com

- Coli Shipping & Transport
 - 주소: Keizerstraat 20-22 2000 Antwerpen
 - 전화: 32-3-213 07 95, 팩스: 32-3-233 43 26
 - E-메일: info@coli.be
 - 웹사이트 : www.coli-shipping.com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벨기에는 일찍이(2차 대전 이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어 왔으며, 외국인 소유 지분의 한도나 송금 규제도 없고 산업 분야의 제한도 없다. 또한 세제에 있어 외국인 기업도 국내 기업과 하등의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기업의 매출액 순으로 100위 내 기업 중 70%, 3,500위 내 기업 중 30% 이상이 외국인 기업이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벨기에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 개방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0년에 외국 기업이 벨기에에 투자한 금액은 620억 달러에 달해 미국(2280억), 중국(1060억 달러), 홍콩(690억 달러) 다음의 4위 유치국가로 부상했다(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이는 2009년도(240억 달러)에 비해 158%가 증가한 것으로 EU국가 중 가장 외국인 투자 증가율이 높았다(같은 해 EU의 외국인 투자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20% 감소). 안트워프 대학의 Van Den Bulcke 국제 경제학 대학 교수는 벨기에가 세계 외국인 투자 유치 17위(2009년도)국가에서 4위의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특히 가상이자제도(notional interest)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기의 진동이 파급되기 전인 2008년에는 벨기에 외국인 투자액이 1,100억 달러까지 달한 국가이며 FDI Magazine(Foreign Direct Investment Magazine, Financial Time 소속)이 발표한 "Business Location of the Future 2008/09"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200여 지방 중 벨기에의 플란더스와 왈로니아 두 지방이 모두 5위 내 가장 투자 매력이 있는 지방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동 보고서에서 벨기에의 긍정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요소는 경제 성장 잠재력, 사회 안정도, 생활의 질, 인력 자원, 인프라 시설 및 사용 비용이라고 평가되었다.

벨기에 투자 기업들의 다수는 벨기에 투자의 장점으로 첫째 고수준의 인력 자원이 풍부하고 둘째, 특히 제조 분야의 생산력이 높으며 셋째, 빈부 차가 적고 생활 수준이 높은 중산층이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이며, 넷째, 운송망, 통신망 등 인프라 구조가 발달하고 다섯째 물류 산업이 발달한 점을 들고 있다. 특히 물류 산업 면에서는 벨기에가 유럽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부정적 요소로는 특히 인건비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강화키 위해 투자에 유리한 세제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2012-2015년간 정부부채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투자유치제도에는 큰 변동이 없다. 2012년에 시행되는 투자 혜택을 들면 다음과 같다.

○ 가상 이자 제도

- 벨기에 투자 유치제도 중 가장 중요한 조치로 간주되고 있는 가상이자제도는 기업이 고유 자본을 투자할 경우 주는 세계 혜택으로서 고유 자본 투자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더라면 은행에 지불했어야 할 이자액 만큼을 법인세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벨기에 노조는 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 너무 유리한 조치라고 비난하며 폐지 또는 조건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신 정부는 이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적용 이자율을 다소 낮출 뿐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신 정부는 2012년 1월 초 발표에서 2012년에 3.425%의 이자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3월 중 중간 예산(2012년도 예산) 검토 때에 3%로 낮추었다.

○ 특허나 로열티 소득에 대한 과세율 할인 제도 : 내국 기업은 물론 외국인 기업의 벨기에 지사들에게도 제공하는 제도로서 특허/로열티 소득의 80%를 법인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

○ 외국 기업은 벨기에 업체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법인 소득세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나.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

벨기에 국가 체제가 1993년 이후 완전히 연방 체제로 변형되면서 연방 정부는 통화, 세제, 사회 보장 제도, 외교 등 국가 주체성과 직접 연계된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그 외 분야는 지방 정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지방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지역에 따라 해당 지방 정부 당국과 투자 지원을 협상해야 한다. 지방 정부로는 플레미쉬, 왈로니아, 브뤼셀 지방 정부의 3개 지방 정부가 있다.

따라서, 투자 시 투자 지역 관할 지방 정부 당국과 투자에 따른 투자 지원 혜택을 협상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와 특히 환경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방 정부 당국을 접촉, 장단점을 심층 분석한 후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나 공장 이전 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다. 투자 제한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경우에 이를 경제부와 금융 감독 위원회(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 차별 대우 제도가 없으며 벨기에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영업 활동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 한도액, 투자 비율, 지분 소유, 투자 분야 등의 제한이 없다.

단, 예외적으로 항공, 내수로 운송과 벨기에에 등록된 선박 해운은 벨기에나 EU 기업의 과반수 지분이 요구되고 적어도 25%의 비용을 벨기에 공공 당국이 지불하는 공공 사업은 벨기에와 EU 기업에 한한다. 그리고 철도와 대중 교통 등 일부 분야는 아직 시장이 개방 되지 않은 공공 분야로 민간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벨기에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 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ONSS)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 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근래 단속이 강화되었다.

라. 투자 금지

벨기에에는 보험이나 은행, 리스, 운송, 여행, 의약품, 식품과 같은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 법도 금지가 목적은 아니고 소비자, 건강, 안전 보호를 위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정 조건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 자본 기업이든 내국 기업이든 동등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금지 조치는 없고 외국인 투자의 금지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사회 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여 천연 자원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이나 사회 풍기를 해치는 사업은 우선 공장 건설과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내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마. 투자 허가 제도

외국인은 정부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즉, 투자 희망자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투자 보조금 수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유통업과 같이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벨기에에는 연방 국가로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연방 정부의 경제부에 외국인 투자부가 있으나 동 부서는 벨기에 전체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각 지방 정부의 외국인 투자부서와 연결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친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 보조금 및 각종 혜택의 부여 결정권은 지방 정부에 있다.

바. 투자 매력도

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의하면 벨기에가 2010년도에 외국인 투자 505억 불을 유치하여 2009년 대비 50% 증가하여 유럽국가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KOF(스위스 경제연구소)가 2011년 초 발표한 “Index of Globalization 2011”(국별 글로벌화 지수)에서도 벨기에에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국가로 평가되었다. KOF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글로벌화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하며 소 카테고리 기준으로 현행 경제 교역, 경제적 제한, 정보 교환, 문화적 접근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세계 10위 개방국가

순위	국 가	지 수
1	벨기에	92.60
2	오스트리아	91.67
3	네덜란드	91.16
4	스웨덴	89.26
5	스위스	88.97
6	덴마크	88.96
7	프랑스	87.65
8	헝가리	87.62
9	포르투갈	87.28
10	아일랜드	86.45
54*	한국	66.57

자료: KOF "Index of Globalization 2011"

이 같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방도가 높다는 점 이외에도 벨기에 투자 환경의 긍정적인 요인은 유럽의 관문이며 우수한 인적자원, 높은 노동 생산성, 인프라구조 발달, 높은 생활의 질, 안정된 사회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벨기에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영국과도 이웃한(고속전철로 2시간 15분)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적 위치에 있어 454 백만 명의 유럽 소비자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통신, 도로(도로밀도 4.5km/km²로 고속도로 및 아스팔트도로 밀도 유럽 1위), 철도(철로망 밀도 유럽 4위), 내수로, 공항, 항만 등 물류 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이다.

안트워프 항(물동량 유럽 2위), 브뤼게 항 등 국제 항구가 있어 국제 해운 활동이 활발하며 차량으로 2시간 반 내에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 주요 도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2008년도 Cushman&Wakefield의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가 유럽 1위의 물류투자자치국가로 평가 받았다.

브뤼셀 수도 지역에만도 200여 외국기업이 있으며 EU집행위, EU의회, 유럽항공안전기구(eurocontrol), NATO 본부 등 국제이익 단체가 3,000 여 개, 로비 활동자 수가 13,000명의 워싱턴 다음의 2위 국제도시로서 전략적 위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화학 등 환경 조치에 민감한 분야의 기업 들은 EU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규의 변동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 하여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소재하고 있는 벨기예를 투자지로 선정하고 있다.

다국어 구사 인력 풍부, 고 수준의 노동 생산력, 높은 수준의 생활의 질, 개방적, 외국인 친화적 사회환경, 고도의 R&D 잠재력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세계은행('Doing Business 2008") 벨기예를 기업 설립 절차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한 바 있는데 이는 벨기에 정부가 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4일이면 기업 창설이 가능하여 이점 또한 투자 유치 장점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 기업지배헌장(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

EU집행위는 단일시장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2000년 대 초부터 EU의 회사법을 현대화하고 기업의 윤리를 강화키 위해 2003년에 백서를 마련했다. 벨기에에서는 몇몇 대기업들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EU백서 내용을 기초로 한 기업지배헌장을 2004년에 마련했다. 그러나 이 헌장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도입 여부는 기업의 의도에 달렸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들어 난 비조리 문제들을 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벨기에 정부는 2009년에 기업 경영과 경영층의 통제를 강화한 새로운 헌장을 마련, 공기업과 브뤼셀 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한해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신규 기업재배 헌장을 적용해야 하는 공기업은 철도국(SNCB, SNCB HOLDING, INFRABEL), DNCPRNR(la Poste), 통신국(Belgacom), 항공 관제 당국(Belgocontrol)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차보고서에 기업통할제도 시행 상황보고서 첨부
- 이사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 신설(이는 2008.12.17일 법령에 의한 것이며 이사들의 대부분은 경영권이 없는 독립적 입장을 가진 비 경영 이사들로 구성)
*보수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이사진, 중역진, 기도 경영층의 보수 정책과 이들 각 개개인의 봉급을 제안할 수 있음. 또한 연차 보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차 주주총회 때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연차보수보고서 : 2010년부터 Euronext Brussels(벨기에 증권시장)에 상장 기업은 연차 보고서에 이사와 중역의 각 개인 보수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해야함(보수보고서는 연차보고서와 별도로 주주총회의 표결로 찬.반이 결정됨). 공기업도 이사진의 보수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이사들이 받는 보너스의 지급기준과 지급기간도 정해야 함. 즉, 변동보수의 15%는 이사로서의 근무 연한이 적어도 2년이 될 때 지급하고 또 다른 15%는 근무연한이 적어도 3년 될 때 지급해야 함. 특별한 한 해 동안에 변동보수의 5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보너스 금액이 연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음)
- 벨기에 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음. 그리고 주식이나 옵션의 취득권은 지급 후 3년이 지나야 함. 그로나 이 규정은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퇴직 보상금 제한(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기업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독립이사에게 보너스 지급 금지(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외국기업 투자동향

벨기에는 전통적인 경제 개방국이며, 국제 교역 의존도가 큰 국가이다. 2차 대전 이래 외국인 투자가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벨기에 경제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벨기에 경제의 주요 특징은 외국 기업(외국인 지분율 50%를 초과할 경우 외국 기업으로 간주)이 제조업 고용의 32.8%, 서비스 분야 고용의 15.3%를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Ernest&Young은 벨기에가 2010년에 유치한 신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159 건으로 이 중 97 건수가 신규 프로젝트라고 발표했다(2011년 5월 25일 investment Barometer).

Ernest&Young은 벨기에의 R&D 투자 인센티브와 고유자본 투자 시 과세액에서 가상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조치 등의 인센티브로 명목법인세율이 상당히 감소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전망대로 UN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1에 의하면 2010년에 벨기에가 620억 유로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 4위 외국인 투자 유치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같은 해 EU전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20%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증가(156%)라 할 수 있다.

□ 2010년에 실현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 IKEA: 기존 체인점 확장과 신규 체인점 개점을 위해 21백만 유로 투자
- Pfizer : R&D 센터 설립
- 스위스 Holcim사: 시멘트 신규 제조공장 건설에 2.5 백만 유로 투자
- Avient(Zimbabwe 항공사): 벨기에 Liège 공항에 유럽 hub 설치
- Regus(영국의 설비 갖춘 사무실 임대 업체): 벨기에 Gent에 비즈니스센터 설립
- Sanghai Internation Port Group(중국): 벨기에 APM Terminals Zeebrugge 사의 지분 40% 소유를 위해 40백만 유로 투자
- coca-cola: 벨기에 R&D센터 확장에 11.6백만 유로 투자
- 그외 Genzyme, Paccar 등도 R&D센터 설립

지역별 대 벨기에 외국인 투자

(단위: 백만 유로)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전세계	95,376	17,075	49,777
유럽	90,565	17,090	49,225
미주	4,050	-233	208
아시아	493	218	70
아프리카	-5	0	0
오세아니아	3	0	278

회사자본 투자로 기준은 투자액-투자철수 액의 순 투자기준

자료: 벨기에 중앙은행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의 대 벨기에 투자

한국의 대 벨기에 투자는 2010 년에 12 건의 3 억 천 8 백만 달러의 투자가 신고되었으나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1 억 천 6 백만 달러였다. 신규법인 Dear Food Europe(초콜릿생산)을 포함하여 2 개 신규법인이 설립되었다.

2011 년 상반기까지는 1 건, 9 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대표적 제조 투자 기업은 Mons 소재 두산 중공업이며 합병 이전 대우 중공업이 1,220 만 달러(1991 년)를 투자하여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를 생산, 유럽 전역에 판매 중이다.

그 외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Hyundai Heavy Industrues Europe N.V, Mobis Parts Europe N.V., LG Electronics Antwerp Logistics N.V., SK Global Belgium, 한진해운, 길리안(롯데가 현지 길리안 초콜릿 제조업체 인수), 대모유럽, 기아 자동차 판매지사, 현대상선, STX Pan Ocean 등 이 있다.

한진해운은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일본 케이라인(K-line), 대만 양밍 라인(Yang Ming Line)과 합작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투자 규모는 1,784,000 달러). 2009 년 초 송원산업(PVC 안정제, 산화방지제, Tin 중간체, 폴리우레탄수지, 고분자 응집제 등 정밀화학제품 제조)은 유럽시장 진출 확대 전략으로 안트워프 항구에 ADPO(Antwerp Distribution & Products Operations) 그룹과 합동으로 distribution center를 설립했다.

나. 벨기에의 대한 투자

1974년부터 2008년까지 벨기에의 대한 투자는 총 189건, 33억 달러이며 최근 6년간의 투자액이 동 기간 총 투자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15건의 8천3백5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제조분야에서 지금까지 벨기에에는 정보통신분야를 비롯하여 산업용 필름, 자동차용 복합수지판 제조, 화공약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섬유기계, 의약품 분야로 비교적 다양하다. 대표적 투자기업으로는 Solvay(화학), Total(화학), UCB(제약), Agfa-Gevaert(사진), Umicore(2차 전지 소재), Dow Corning 등이 있다.

한-벨기에 투자 교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수)

연도	2008		2009		2010		2011(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투자유치	17	72	7	32	15	83	-	-
대벨투자	7	55	5	97	12	116	1	9

자료: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실투자 금액기준)

주 : 2011년 벨기에 투자 통계 미 집계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황

벨기에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법이 없다. 벨기에 정부는 일찍부터 외국인 투자 진출을 환영해 왔지만 최근에는 더욱 더 정책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 지원 조치가 지방 정부 관할권에 소속되면서부터 각 지방 정부는 서로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한 벨기에 기업의 태도는 중립적이며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고용 창출, 환경 친화적 신기술 보유, 향후 사업 전망이 좋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외국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차별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노동 조합도 고용 유지 내지는 증진에 관심을 집중하고 기업의 국적보다는 노동 조건 등 대우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벨기에 기업을 인수할 경우 벨기에의 노동 관행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이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투자 유치 전담 기관

벨기에에는 연방 국가로서 연방 정부와 3개의 지방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업무 분야도 연방 정부의 권한과 지방 정부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1) 연방 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중 조세 분야(세제 혜택 등)와 입국(비자, 거주, 노동 허가 등 포함) 관련 행정은 연방 정부에 귀속된다.

- 경제 협력부(ACCORDS ECONOMIQUES, 경제부 소속) 내 외국인 투자부(service Investissements Etrangers)
 - 주소: Rue du Progrès 50, 1210 BRUXELLES
 - 전화: 32-2-277 78 08/ 팩스: 32-2-277 53 06
- 경제부 소속 경제 협력부(ACCORDS ECONOMIQUES)의 외국인 투자부는 지방 정부 외국인 투자부를 연결하는 일종의 Coordination task로서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정보
 - 회사 설립 관련 정보, 투자 지원 제도 등 전반적인 투자 정보 제공
 - 외국인 투자 관련 입국 수속, 노동 허가, 체류 증 관련 행정 문제 지원
- 재무부 소속 투자 세제 지원부(Cellule d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 1997 년 벨기에 연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벨기에 조세 제도와 세제 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실무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부 내에 외국인 투자 지원부를 설치했다.
 - Cellule d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 주소: rue Marie-Therese 1, 1000 Bruxelles
 - 전화: 32-2-257 938 66/ 팩스: 32-2-257 951 12
 - E-메일: taxinvest@minfin.fed.be

2) 지방 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

각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계획, 수행하고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왈로니아지방 정부(프랑스어계)
 - OFFICE FOR FOREIGN INVESTORS (OFI)
 - 주소: Place de la Wallonie 1, 5100 NAMUR
 - 전화: 32-81-33 37 93
 - 팩스: 32-81-30 64 00
 - 웹사이트: www.awex.be
- 플래미쉬지방정부(네덜란드어계)
 - FLANDERS INVESTMENT and Trade(F.I.T.)
 - 주소: Gaucheretstraat 90, 1030 BRUSSELS
 - 전화: 32-2-504 88 71
 - 팩스: 32-2-504 88 70
 - 웹사이트: 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
- 브뤼셀 지방 정부
 - DEPARTMENT OF FOREIGN INVESTMENT
 - 주소: RUE CHAMPS MARS 25, 1050 BRUXELLES
 - 전화: 32-2-513 97 00
 - 팩스: 32-2-511 52 55
 - 웹사이트: www.inverstinbrussels.com
- 외국인 투자 유치 홍보 사업
 - 홍보물 발행 및 배포
 - 투자 유치 세미나 개최
 - 외국인 투자 사절단, 외국인 투자자 개별적 지원
 - 투자 관련 정보 제공, 공업 지대 물색, 사업 파트너 물색
 - 투자 관련 행정 절차 지원 등

다. 투자 유치 관련 법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1992년 6월 25일 신 경제 진흥법에 의거, 고용인 250명 이하, 매출액 2,000만 유로 이하의 중기업과 소기업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원 방법도 투자 계획의 재원 출처 방법에 구별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특히, 고용 창출과 환경 및 재사용 등 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국가 체제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로 분권화 되면서부터 재정과 연계되는 투자 유치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은 지방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원칙 적으로 투자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 정부로부터 투자지원을 받으려면 투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외국인의 벨기에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정 및 세제

- 원칙: 내국인(법인)대비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다. 벨기에에서는 부동산 취득 및 소유에 있어서 내국인에 비해 거주/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규정도 없다. 예를 들어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영주권 취득이나 정부 기관의 특별한 허가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 소득 송금 제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송금 제한이 없으며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송금한 송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제한도 없다.
- 부동산 취득 비용
 - 대지 취득 비용: 대지 매매 가격+행정 비용+공증 비용+등록세(les droits d'enregistrement)이 포함됨.
 - 건물 취득 비용: 신 건물 취득의 경우(대지 매매 가격+등록세)+(건물 가격+부가가치세 21%)+ 공증 비용+행정 비용
 - 기존 건물 취득 비용: 건물 매매가(기존 건물 매입 때는 건물 땅 가격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땅을 포함한 건물 가격을 의미함)+등록세+공증 비용+행정 비용
- 부가가치세는 신 건물과 개축 공사 규모가 커 신축 건물로 간주되는 개축 건물 매매에 적용되고 첫 건물 점유일부터 2년째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를 신 건물로 간주한다.
- 등록세: 부동산 등록 세율은 부동산 가격에 기준하며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왈로니아와 브뤼셀 지방에 소재한 부동산의 등록 세율은 12.5%이며 플래미쉬 지방에 소재한 부동산의 등록 세율은 10%이다. 단 개인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업체가 매입할 경우 등록 세율은 5%(단 브뤼셀에 소재한 경우 8%)이다. 한편, 등록 세율의 혜택을 받은 부동산 거래 업체는 매입 10년 내에 매매해야 한다.
-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자는 매년 보유세를 지불한다. 보유세는 부동산 소재 구청이 추정한 가상 임대비를 기초로 하며 기본 세율은 각 지방에 따라 다르다. 기본 세율은 지방 정부 소관으로 지방 정부가 세율을 정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율에는 각 지방의 기본 세율에 주/구청 세율(centimes additionnels이라 부르며 1/100를 의미함)이 추가된다. 주/구청세율은 각 주/구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벨기에 3개 지방의 부동산 보유세 기본 세율은 플래미쉬 2.5%, 왈로니아 1.25%, 브뤼셀 1.25%이다.
- 부동산 처분 시 관련 세제: 부동산 처분과 직접 관련된 세제는 없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일로부터 5년 내 팔아 소득을 얻을 때(즉 팔 때 가격이 살 때 가격보다 높은 데서 온 소득으로 차액을 의미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적용되고 5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 부동산 투자회사(SICAFI) 설립 조건
 - 벨기에 금융감독위원회(CBFA: Commission Bancaire, Financière et des Assurances)의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식회사 형태의 벨기에 법인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은 1,250,000 유로이며 전액 불입되어야 함
 - 자본 모집 시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유가 증권 발행을 통해 공개 자본을 모집해야 함.

- SICAFI에 대한 세제: SICAFI는 벨기에 정부가 집단 저축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세금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집단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 특별한 법인세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법인 소득세가 거의 면제됨
 - 동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이중 과세 방지 협정국과 이중 과세 방지 혜택을 받음
 - 부가가치세 면제

라. 투자 우대 조치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벨기에 소재 기업은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대 제도를 누릴 수 있다. 투자자의 국적이나 사업 유형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인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직접적으로 신규 설비, 확장, 전환, 현대화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국가 이익과 부합해야 한다.

마. 투자 인센티브

1)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 지역), 투자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즉, 대기업의 경우 투자 대상은 환경 분야이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규 환경 규정의 적응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12% 지원,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 지원, 환경 규정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 개선 투자 시에는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종업원 250명 미만, 대기업 지분 참여율 25% 이하, 총 매출액 최고 2,000만 유로 또는 총 대차대조 차액 1,000만 유로)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 지원(보조금 부여 후 6개월 후부터 최대 3회 분할 상환 조건)의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신규 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정 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 자산 매입 등이다.

무이자 대출 시 지원 규모는 매년 최고 625,000유로에 해당되는 투자 계획 시 승인 투자액의 50%에 대해 무이자 융자가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마케팅, 품질 검사, 산업 구조, 판매화, 환경 재선, 기술 및 경영 관리 등의 향상을 위한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신기술 적용, 지적 소유권 보호, 신규 희망 분야 개발 등을 위한 연수이다. 환경 투자 시 투자 성격에 따라 투자액의 12-15%가 지원된다.

또한 각 지방 정부는 관할 지방 내 낙후 개발 지역을 정하고 낙후 지역 별로 투자 보조금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플레미쉬 지방의 LIMBURG 주 투자 시 21%까지 누적 지원이 가능하고 왈로니아 지방의 Hainaut 주는 EU가 지정한 낙후 지역으로 최대 4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각 지방 정부에서는 자기 지방 투자 기업에게 Capital Premium, Cash Grant, Interest Rebate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된다. 그 외 DISTRIBUTION CENTER, SERVICE CENTERS, 신규 투자 등에 특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2) 유통 센터에 대한 특혜

유통 센터(벨기에 법인이던 외국 법인의 BRANCH던 상관 없음)에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혜택 기간은 5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DISTRIBUTION CENTER는 최소 고용인 수나 매출액,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제 조건이 없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무 당국은 세제 혜택 대상 유통 활동 리스트를 발표한다. 리스트에 없는 활동을 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세무 당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상황에 맞게 허가함).

단, 재판매(resale)용으로 구입한 완제품의 제품 성격을 향상하거나 변경하는 활동과 순수한 포장 활동(완제품 포장이나 벌크로 들어 온 상품을 재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은 유통 센터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기 자본 투자에 대한 특혜(Notional interests)

벨기에 정부는 투자 유치의 주요 무기로서 2007년부터 자기 자본을 자사에 투자할 때 Notional interests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혜택을 도입했다. Notional Interests란 자사에 투자한 자기 자본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더라면 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 이자(가상적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동 제도는 기업의 자기 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4) 외국인 연구원이나 특수 기술자 고용 여건 완화

기업의 외국인 고급 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특수 비거주자 세제가 적용되고 있다. 즉, 고용된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한 개인 소득세 부과 시, 벨기에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대 과세하며 해외 출장일 중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또한 이사 비용, 주거 임대, 교육비 등 벨기에에서 일하기 위해 받은 수당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급 인력의 조건은 일시적 근무이나 기간의 한도는 없다. 고급 인력이란 벨기에 노동 시장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특수 매니저급이나 과학자가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노동 허가도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그간 벨기에 과학 연구소에서 인도 물리학자를 초대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1) 벨기에 지방구직기관(FOREM)에 외국인 고용 신청서와 함께 건강 진단서,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고 2) 모든 서류의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 정부 노동부의 이민부(Office des Etrangers)에 제출되고 3) 이민부는 벨기에에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타당성을 인정할 때 노동 허가가 발급되었다. 이후 4) 발급받은 노동 허가를 가지고 인도 물리학자는 주 인도 벨기에 대사관에 가서 3개월 이상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가 까다로워 빨라야 5-7주의 시간이 걸렸었다.

그러나 이 조치 도입 후 외국인 기업의 중역의 경우, 채용 계약서, 외국 연구자의 경우 벨기에 구직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용 허가서만 가지고 해당국 벨기에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벨기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절차가 5-7주에서 2-3주로 단축되었다.

5) 과학자나 연구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완화

2008년 7월 1일부터 과학자나 연구자로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이들 봉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세금 당국에 지불하는 원천 징수 소득액의 65%가 면제된다. 대학, 연구 기관, 산학 기업, 박사급 엔지니어 고용 기업, Young Innovative Companies가 이에 해당된다.

바.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1) 투자 제한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며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 차별 대우 제도가 없으며 벨기에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영업 활동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 한도액, 투자 비율, 지분 소유, 투자 분야 등의 제한이 없다.

또한, 벨기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 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ONSS)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사회보장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 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근래 검사가 강화되었다.

2) 투자 금지

투자금지법은 없다. 다만 사회 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여 천연 자원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업은 우선 공장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므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내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벨기에는 보험이나 은행, 리스, 운송, 의약품, 식품과 같은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도 없다. 또한 이러한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법도 투자 금지가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조건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즉, 내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금지법은 없고 외국인 투자의 금지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적 구분

벨기에 법이 인정하는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합동회사(Co-operative Company), 유럽경제이익그룹(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이 있는데 합동회사(Co-operative Company), 유럽경제이익그룹(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은 현지 신규기업으로는 설립이 어려운 형태이다. 벨기에 투자 진출기업들은 다수 주식회사형태를 취하고 소규모 투자인 경우에 유한책임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1) 주식회사

적어도 2인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는 것이 주식회사의 특징이다.

- 회사 창설 법정 최저자본금은 61,500유로(회사설립 즉시 자본금 전액이 납입되어야 한다)
-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이사회는 최소 3명(발기인이 2명으로 주주 수가 2명인 경우에 주주 수가 더 증가할 때까지 이사 수 2명 허용)이어야 함. 경영 위원회(comité de direction)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이사회는 경영 위원회(comité de direction)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 회사설립 후 2년 동안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무 플랜(financial plan), 즉 재정 능력 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재무플랜은 공증인이 보유함)
- 주식회사는 회계와 행정의 법적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상장 시 금융감독위원회(Commission bancaire, financière et des assurances)에 등록해야 한다.

2) 유한회사

유한회사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 1인 유한책임회사

- 1인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 책임은 초기 발기인 1명에 한 한다.
- 회사 운영상 결정한 사항을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 최소 설립 자본금은 12,400 유로이며 설립1년 내에 12,400 유로가 불입되어야 한다.
- 주주총회에서 유일 동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투표권이나 동업자로서의 특권을 양도할 수 없다.

- 동업자(유일)는 1명 또는 여러 명의 회사 운영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업자로서 지명된 운영 관리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법인이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후자와 연계된 모든 계약에 책임이 있다
- 1인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은 동업자에 주어진 혜택과 개인기업의 장점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특히 회사자산과 개인자산의 분리이며 개인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가족기업의 특징을 보존키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 할 수 있다
- 회사 설립정관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법정 회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2인 이상 유한회사는 2인 이상 여러 명의 동업자로 설립된 민간회사로 각 동업자는 각기 투자한 한도까지 책임이 있으며 동업자의 권한은 일정 조건에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 일정조건 하에 부부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회사로서의 존속기간은 무한정이나 정관에서 회사의 존속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 회사설립정관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정관은 관보에 공고됨)
- 최소 설립 자본금은 18,550유로이며 회사설립 때 적어도 6,200유로가 불입되어야 한다.
- 회사설립 후 2년 동안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무플랜(financial plan)을 제출해야 한다.
- 가족사업이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의 유형을 택하는데 이러한 가족사업의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 주식이 이방인에게 양도되는 것을 제한키 위해 동업자간 사전 합의 없이는 양도가 어렵다.
- 2인 이상 유한회사는 할당분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증서는 기명이여야 하며 권리증서에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3) 개인회사

- 개인회사는 근본적으로 설립자의 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설립 행정이 간소하고 적은 자본(법정 최소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음)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반면 개인자산과 회사자산의 구분이 없고 사업자가 회사 부채에 전적으로 무한정 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 파산 시 사업자 개인은 물론 가정의 자산까지 회사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개인회사인 경우 법인세제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세가 적용된다.
- 개인회사는 소규모 영세기업의 형태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으므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나. 투자형태별

벨기에에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지 지사 유형으로 벨기에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법인자회사(a subsidiary incorporated under Belgian law) 또는 외국법(모회사)의 적용을 받는 현지 지점(a branch incorporated under the law of a foreign county)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지 법인 자회사를 택할 것인지 또는 현지 지점을 택할지는 투자 기업이 선택할 문제로서 기업 전략에 따라 가름될 것이다.

대개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어떠한 유형을 택하던 법인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택하고 있다. 유한회사나 개인기업은 가족 형 소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유형이므로 사실상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1) 현지법인의 자회사(a subsidiary incorporated under Belgian law)

- 회사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이사(director)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의 국적이나 거주에 대한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매일 회사를 관리할 일상 운영권을 1인 또는 다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현지 법인 자회사인 경우에는 1인의 이사에게 한해 위임 권을 부여할 수 있다.
- 벨기에 법인 자회사는 벨기에 회계법에 의해 회계를 집행해야 하고 연차 회계 보고서를 작성, 공개발표 해야 한다. 벨기에 규정상 연차 회계보고서 1부는 벨기에 중앙은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현지 법인의 자회사는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며, 본사와는 다만 업무적 협력 관계와 TOP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게 되는 형태이고, 외국법(예를 들어 한국 모회사)의 적용을 받는 현지 지점은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해 놓은 사무실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현지법인의 자회사의 경우는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점의 경우는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경우는 현지법인에 귀속된다.
- 모든 국가와 마친 가지로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지점과의 차이점은,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니, 지점의 경우는 한국의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있다.
- 금융 문제에 있어서도 현지법인은 자유롭게 현지 금융이나 투자 등에 대한 것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현지 지점(a branch incorporated under the law of a foreign county)

- 지점(branch)의 경우, 본사는 현지 지점을 운영할 법적 대표인(a legal representative)을 임명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대표인의 국적이 반드시 벨기에 인일 필요가 없으며 벨기에 거주 자가 아니어도 된다. 대표자의 권한 구조와 운영권의 범위는 지점 내에서 임의로 결정될 수 있다.
- 지점도 벨기에 회계법에 의해 회계 사무를 집행해야 하나 현지법인 자회사처럼 지점 자체의 연차 회계 보고서를 발표할 의무가 없는 대신 본사의 연차 회계 보고서가 벨기에 공식 언어(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중 하나로 발표되어야 하며 1부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본사의 연차 회계 보고서는 해당국 회계법에 의해 감사, 공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사의 회계기밀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현지에 지점을 설립할 때 설립 자본이 요구되지 않으나 본사는 현지 지점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정 금액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본사가 조달하는 지점 영업 자금에 대한 세금은 없다).
- 지점의 경우 대부분 현지에 파견한 본사 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므로 현지 통제가 용이하며, 자사를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업무 진행상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줄어들고,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새 나갈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3) 대표 사무소/프로젝트 오피스

- 대표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non-commercial branch를 의미하며 특별한 설치 절차는 없고 하기 구비 서류를 벨기에 경제부 내 공증 담당 부서에 제출, 공증을 받으면 된다. 연락 사무소 형태로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 이외의 업무만 수행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단순 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구비 서류 및 관련 당국
 - 본사 정관 번역본(주한 벨기에 영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현지 사무소 설립 결정 이사회 회의 기록 발췌서와 현지 법정 대리 책임자 임명서
 - 본사 최근 연차 회계 보고서 사본
 - 참고) 한국어 서류는 벨기에 법정 번역사에 의해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소요 기간: 1~2 일
 - 신청 및 발급처
- SERVICE DE LEGALISATION
 - 전화: 32-(0)2 501 89 00
 - 팩스: 32-(0)2 501 37 90
 - E-메일: legalisation.ae@diplobel.fed.be

다. 투자형식(주체)별

1) 단독투자

-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법인 또는 개인회사 등을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 벨기에에 설립된 기존의 100% 외국투자기업은 또 다른 외국투자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100%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 사전 투자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 지방당국의 투자지원을 받을 경우, 사전에 투자지원 승인이 필요하다.

2) 합작투자

-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합작하여 신규 법인(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 비율의 제한이나 규정이 없어 자유로이 합자투자를 할 수 있다.
- 외국 투자자의 사전 투자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 지방당국의 투자지원을 받을 경우, 사전에 투자지원 승인이 필요하다.

3) 경영협력계약 (BCC)

- 특정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 간(외국 사업자, 국내 사업자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협력 계약 하에 일시적으로 계약으로 정해진 특정 사업에 한해 마치 회사처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사실상 가상적 회사로서 자체적인 법적 인격은 없다. 즉, 일시적 협력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이 계약 협력기간 동안에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책임과 경영 결과의 분배를 규정할 수 있다.

라. 외국인투자 진출 선호형태

1) 진출 선호 형태

- 투자규모가 비교적 작을 경우에는 경영 및 관리가 간편한 유한회사 형태가 합당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적합하다. 벨기에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진출 불가 형태

- 이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지 진출불가 형태는 없으나 개인사업자로서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벨기에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려면 영업 성격에 따라 현지 직업자격증과 학력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동종의 직업자격증이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벨기에정부의 동격 인정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격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허가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따라 진출이 불가능하다.

마.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현지법인의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1	설립 요건	- 1인 유한회사: 발기인 1명, - 최소자본금: 12,400 유로 - 2인 이상 유한회사: 발기인 2명 이상 - 최소자본금: 18,500 유로 -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 61,500 유로	-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 후 1년 내에 최소한 12,400 유로가 불입되어야 함. - 2인 이상의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 자본금 전액이 예치되어야 하며 설립 시 최소한 6,200 유로가 불입되어야 하며 각 현금 출자 동업자는 설립 시 각기 출자액의 적어도 20%를 불입해야 함 -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전액이 예치되어야 하며 설립 시 최소 61,500 유로가 불입되어야 함.	대행업체 (Guichet des Entreprises: 일종의 기업 창구로서 경제 부공인 업체)
2	임대차 가계약	가계약 체결		
3	구비 서류 및 절차	- 구좌개설 확인서 - 회사정관 (주식회사와 유한책임 회사는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 - 상업재판소에 정관 등록 (회사 창설일 15일 내로 공증인은 회사정관과 법인 대장에 등록 해야 함.) - 상업재판소는 회사 정관이 등록 되면 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 에 입력하고 기업 번호를 받음. 관보광고도 상업 재판소에서 처리함) - 공증인은 회사정관을 재무부 등록소, 토지 대장소, 도매 등록소에 등록함 - 부가가치세무소에서 부가 가치세 번호 신청 - Guichet d'entreprise 에 업종등록	- 현지 지사나 지정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현지 거주이사를 파견할 때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비자와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대행업체 (Guichet des Entreprises: 경제부공인 업체)

2) 지점 및 대표사무소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1	설립 요건	- 본사의 정관 사본(번역본) - 본사의 현지지점/ 대표 사무소 설립 결정 확인서 - 지점 운영 책임자 임명, 운영 권한 명시 문서 * 설립 자본이 요구되지 않음	- 본사의 정관 사본은 현지언어(지점설립 장소에 따라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야 함. - 본사는 현지지점/ 대표 사무소 운영에 충분한 비용을 조달해야 함	- 지점의 경우 대행업체 (Guichet des Entreprises: 경제부공인 업체) - 대표사무소의 경우 경제부
2	임대차 가계약	가계약 체결		
3	구비 서류 및 절차	지점의 경우: - 은행구좌개설 확인서 - 본사 정관 번역본, 본사의 현지 지점 설립 결정 확인서, 지점 운영 책임자 및 권한을 명시한 문서 (상업 재판소에 등록, 상업 재판소는 회사 정관이 등록되면 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 에 입력하고 기업 번호를 받음. 관보공고도 상업재판소에서 처리) - 본사정관사본은 재무부 등록, 토지대장, 도면 등록함 - 부가가치세무소에서 부가가치세 번호 신청 - Guichet d'entreprise 에 업종등록 연락사무소의 경우 - 본사의 정관 사본 공증 - 본사의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 확인서 - 대표 사무소 책임자명 - 본사 최근 연차보고서 번역본(현지어)	- 현지 지사나 지점/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3 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할 대표를 파견할 때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비자와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락사무소 설치 시 본사 정관은 주한 벨기에 대사관 영사의 공증을 받아야 함	- 대행업체 (Guichet des Entreprises: 경제부공인 업체)

3) 개인 기업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1	설립 요건	- 은행구좌개설 - 정관 작성(공증인에 의한 작성이 요구되지 않음) * 설립자본이 요구되지 않음	한국인(외국인)이 벨기에에서 개인 사업을 하려면 노동부에서 Carte professionnelle를 발급받아야 함.	대행업체 (Guichet des Entreprises: 경제부공인 업체)
2	구비서류 및 절차	- 구좌개설 확인서 - 상업 재판소에 정관 등록, 상업 - 재판소는 회사정관을 등록하고 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 에 입력, 기업번호를 받음. 관보 공고도 상업재판소에서 처리함) - 정관사본은 재무부 등록소, 토지대장, 도맨 등록함. - 부가가치세무소에서 부가가치세 번호 신청 - Guichet d'entreprise 에 업종 등록	- 개인기업 발기인은 기업창설 이전에 벨기에 대사관 에서 비자를 받아야 함.	

벨기에에는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정을 정보화하고 중앙 기업 데이터뱅크 (central databank)역할을 하는 crossroad Bank for companies Carrefour des Entreprises)의 Business One-Stop-Shop을 마련하여 회사설립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쉽게 회사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회사설립 행정을 대행하는 기업창구(Guichet des Entreprises)를 마련했다. 기업창구는 상공회의소나 회계사무소 등으로 경제부의 공인을 받은 민간기업이나 서비스 수수료는 경제부가 결정한 가격을 적용한다.

기업창구 리스트는 경제부에서 얻을 수 있으며 곳곳에 산재하여 회사설립장소에서 가까운 기업창구를 선택할 수 있다.

○ 경제부 기업창구 사이트

- http://economie.fgov.be/fr/entreprises/vie_entreprise/Creer/Guichets_entreprises_agrees/

바.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 Cairn Legal

- 주소 : Chaussée de la Hulpe 177/12 1170 Brussels, Belgium
- 전화 번호 : 32-(0)2-787 70 70
- 이메일 : bp@cairnlegal.be(변호사명 Bernard Paul)
- 규모 : 고용인 15명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 한인 변호사 유현채
- 웹사이트 : www.cairnlegal.be

□ Laga

- 주소 : Berkenlaan 8a 1831 Diegem, Belgium
- 전화 번호 : 32-(0)2-800 71 52
- 팩스 번호 : 32-(0)-800 71 01
- 이메일 : eunjungkim@laga.be
- 한인 변호사 : 김은정
- 웹사이트 : www.laga.be

6. 투자입지여건

가. 공장 설립 가이드

벨기에에는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육성키 위한 산업 공단이 전국에 걸쳐 250개 있다. 이중 산학 공단은 15개이며 나머지는 일반 산업 공단이다. 지방별로는 왈로니아(Wallonia) 지방에 122개, 플래미쉬(Flanders) 지방에 111개, 브뤼셀(Brussels) 수도권에 17개가 분포되어 있다.

벨기에 산업 및 산학 공단은 지방 정부 및 지방 자치 당국에 의해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 입주를 환영하고 외국 기업에 한해 입주를 받는 외국인 기업 전용 공단은 없다. 투자와 관련,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조세 분야에 국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신규 고정 자산(연구개발, 에너지 절약 투자 및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만 대상)에 투자된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벨기에 외국인 투자 유치 당국(각 지방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산업 활동에 따라 적절한 산업 단지를 권유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이 벨기에에 생산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립하는 방법은 대개 신규 건축이나 기존 건물 개축인데 설립 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각 지방 정부나 구청 당국에서 해당 구역의 도시 계획, 산업 활동 허가 지역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심층 검토하여 설립 후에 건축 허가나 영업 허가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 계획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브뤼셀 수도의 경우 각 구청에서 해당 구역의 도시 계획 및 산업 활동 허가 지역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전에 산업 활동이 환경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관련 행정부

○ 플래미쉬지방(Flanders)

- 기관명 : 토지 및 도시개발부(Bestuur Ruimetelijk Ordening en Woonbeleid en Onroerend erfgoed)
- 주소 : Bld. du roi Albert II 19, bus 12, 1000 Brussel
- Tel : 02/553 83 02, Fax : 02-553 83 05
- E-mail : department@rwo.vlaanderen.be
- 웹사이트: <http://www.rwo.be>

○ 왈로니아 지방(Wallonia)

- 기관명: 토지관리부(Administration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 주소: Rue des Brigades d'Irlande 1, 5100 Namur/Jambes
- Tel : 081/33 21 11, Fax : 081/33 21 10
- E-mail : b.monnier@mrw.wallonie.be
- 웹사이트 : <http://mrw.wallonie.be/dgatlp>

○ 브뤼셀(Brussels)

- 기관명: 브뤼셀 지방정부 내 도시개발부(Ministère de la Région de Bruxelles-Capitale/Administration de l'Urbanisme)
- 주소: Bld. du Jardin Botanique 20, 1035 Brussels
- Tel : 02/204 21 11, Fax : 02/800 38 18
- E-mail : info@mrbe.irisnet.be
- 웹사이트 : <http://www.bruxelles.irisnet.be>

나. 공장 부지 확보

공장 부지 구입 전 설립할 지역의 토지 관리 행정 부서를 접촉하여 공장 부지가 남아 있는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구청 구역 내에서도 공업 또는 상업 활동이 허용된 지역과 완전 금지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에는 공업 용수, 배수 시설, 전력 공급과 통신 시설 등 제반 시설을 갖춘 산업 공단이 약 230 개나 있는데 대부분 당국에 의해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 입주를 환영하며 공단 부지의 구매와 임대도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시 특별한 규제는 없고 다만 공증인(Notary)의 공증을 받아 등기를 해야 한다. 공증 비용은 소재 지역과 매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 이내다.

부동산 등록 세율은 지방에 따라 다소 다르다. 즉 왈로니아와 브뤼셀 지방에 소재한 부동산 등록 세율은 부동산 매입 가격에 기준하여 12.5%이며 플레미쉬에 소재한 부동산의 등록 세율은 10%다.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최소 5년간 부동산 등록세 지불이 연기될 수 있으며 도나 지방 정부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등록세가 면제된다.

다. 건축 허가

건축 허가 신청은 건축지 관할 구청(Commune)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 주민의 의견 조사나 환경 영향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통상 신청 후 1개월 내에 허가서가 발급 된다.

라. 영업 허가

관할 구청 당국에 건축 허가외 더불어 영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영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위험하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 2가지로 대분)주민의 의견 조사와 환경 영향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거부되거나 또는 임시 허가(최고 2년) 또는 장기 허가(최고 30년)가 발급된다. 영업 허가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는 1차 구청 내 College d'urbanisme에 2차(최종) 지방 정부 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는 건축 허가나 영업 허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방 정부마다 각기 상이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 지방 정부에서 환경 허가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다른 지방 정부 당국에서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지방에서 거부된 경우 물론 영업 소재지를 바꾸어 다른 지방 정부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마. 벨기에의 과학 연구 단지

1) 특징

- 세 지방 정부 별로 구분되어 조직 및 운영
- 대학 주도의 연구 단지(각 연구 단지가 특정 대학을 끼고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 근처에 입지하는 등, 대학의 영향력이 매우 큼)

2) 플레미쉬(Flanders) 지방의 과학연구 단지

□ 주요과학단지

- Haasrode Research Park(일명 Science Park of Leuven)
 - 루뱅 카톨릭대학과 IMEC(세계 유수 R&D 연구소)을 중심으로 발달
 - 루뱅 지역에 소재한, 규모 16 Ha의 연구 단지
 - 주요 연구 분야: ICT, 생명공학, 신소재
- Waterfront Research Park
 - Niel(안트워프와 브뤼셀 사이에 위치) 소재 40 Ha 규모
 - 주요 연구 분야: 하이텍 산업
- Science Park of Ghent University
 - 겐트대학, 플레미쉬 생명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겐트 소재)
 - 주요 연구 분야: 생명공학, ICT
- The Limburg Science Park
 - 림부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1989년 설립
 - 주요 연구 분야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신소재 연구
- The Kortrijk Research Park
 - 루벵카톨릭 대학의 코르트레이크 캠퍼스와 Kortrijk Incubation and Innovation(IICK)를 중심으로 형성
 - 주요 연구 분야: 혁신 기술
- The Brussels Research Park
 - 브뤼셀 자유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 단지로 20 Ha 규모

3) 왈로니아(Wallonia) 지방의 과학연구단지

□ 왈로니아 과학연구단지협회(SpoW: Science Parks of Wallonia)

- 설립 경위: Louvain-la Neuve 연구단지 주도로 2001년 설립, 활성화 추진 중
- 설립 목적
 - 과학 연구 단지 개념 정립 및 활동 촉진
 - 이해 관계자(산, 학, 연)간 네트워킹 강화
 - 왈로니아 지방 R&D 활동 촉진

□ 주요 과학 연구 단지

- Aéroport Charleroi
 - 설립일: 1991
 - 면적: 126 Ha
 - 입주 현황: 97 개사, 3 R&D 센터, 1 대학센터, 3 BIC
 - 주요 부문: 항공, 그래픽, IT, 바이오텍
- Crelys Gembloux
 - 설립일: 1996
 - 면적: 25 Ha
 - 입주 현황: 38 개사, 2 R&D 센터, 1 BIC, 1 인큐베이터
 - 주요 부문: IT, 생명공학
- Louvain-la-Neuve Science Park
 - 설립일: 1971
 - 면적: 231 Ha
 - 입주 현황: 116 개사, 1 대학
 - 주요 부문: 생명공학, 화학, IT
- Liege Science Park
 - 설립일: 1981
 - 면적: 50 Ha
 - 입주 현황: 62 개사, 1 BIC, 1 대학, 2 전문인큐베이터(우주 및 바이오텍)
 - 주요 부문: 바이오 산업, 우주, 컴퓨터공학, 전자, 엔지니어링
- Qualitis Enghien
 - 설립일: 2002
 - 면적: 25 Ha
 - 주요 부문: ICT, 첨단기술

4) 브뤼셀(Brussels) 지방

브뤼셀 지방 개발청(Brussels Regional Development Agency)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과학연구단지를 관할하고 있음.(규모: 150 Ha)

- Da vinci Park
 - 1974 년 설립된 최초의 브뤼셀 과학 연구 단지
 - 순수한 산학 과학 연구 단지보다는 첨단 기술 기업들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분야: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자, 마이크로 전자 등 IT 산업
- Erasmus Science Park
 - 브뤼셀자유대학 및 부설 Hopital Erasme 병원에 의해 운영되는 부지 16 Ha 의 과학 연구 단지
 - 주요 연구 분야: 의학, 제약, 생명 공학

- Erasmus Technology Center
 - 일종의 인큐베이터 빌딩으로, 순수한 기술개발보다는 기업경영과 기술적 조연이 주 업무이다.
 - 주요 연구 분야: 의학, 생명공학
- Vesalius Science Park
 - UCL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 주요 연구 분야: 생명공학, 제약

바. 주요 산업 단지 리스트

공업이 발달한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북부)에서는 기존 산업단지가 포화된 상태라 신규 기업의 입주가 쉽지 않으며 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확장이나 신규 산업단지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왈로니아 지방(남부)은 아직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대지의 여분이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외국인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 당국은 신 산업단지 인프라 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왈로니아 지방 소재 산업단지 리스트는 왈로니아 경제인 협회 사이트(www.uwe.be)에서 참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하기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 AERPOLE(ZONING INDUSTRIEL) 6000 CHARLEROI

- 공단 연락처: IGRETEC
- 주소: 1, BOULEVARD MAYENCE, 6000 CHARLEROI, Belgium
- 전화: 32)71-20 28 11
- 팩스: 32)71-33 42 36
- 웹사이트: <http://www.igretec.com>
- E-메일: info@igretec.com

□ HAUTS-SAERTS SPI BUSINESS PARK

- 공단 연락처: SPI+(LIEGE 도 경제개발공사)
- 주소: 11 Rue du Vertbois, 4000 LIEGE, Belgium
- 전화: 32-4-230 11 11
- 팩스: 32-4-230 11 20
- 웹사이트: <http://www.spi.be>
- E-메일: info@spi.be

□ SENEFFE-MANAGE INDUSTRIAL PARK

- 공단 연락처: IDEA
- 주소: RUE DE NIMY 53, 7000 MONS (BELGIQUE)
- 전화: 32-65-37 57 11
- 팩스: 32-65-37 69 54
- 웹사이트: <http://www.idea.be>
- E-메일: direction@idea.be

❑ ORIENTIS BUSINESS PARK

- 공단 연락처: IDETA
- 주소: RUE Saint-Jacques 11, 7500 Tournai (BELGIQUE)
- 전화: 32-69-23 47 01
- 팩스: 32-69-23 47 00
- 웹사이트: <http://www.ideta.be>
- E-메일: info@ideta.be
- 현재 조성 중(285 ha)

❑ GEEL-PUNT INDUSTRIAL PARK GEEL-PUNT

- 공단 연락처: GOM ANTWERPEN
- 주소: LANGE LOZANASTRAAT 223, BUS 4 53 2018 ANTWERPEN (BELGIUM)
- 전화: 32-3-240 68 00
- 팩스: 32-3-240 68 68

7. 노무관리

가. 고용

벨기에는 특별한 법적 고용 절차는 없고 광고, 정부 구직 기관, 민간 구직 업체, 또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 학교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 계약을 하면 된다. 단, 근로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반드시 고용 계약서를 문서화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문서화할 경우 계약서 언어는 고용 지역의 공식 언어에 따라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를 선택해야 한다. (단, 브뤼셀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가 공용되는 지역이므로 이 경우 피고용인의 언어, 즉,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작성해야 함)

기한 고용이나 파트타임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 기간과 업무 성격이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벨기에는 무기한 고용 계약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업무일 경우 한정된 고용 기간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기한이 한정된 고용 계약을 2년간 4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용 계약에는 ‘trial period’를 명시할 수 있고 동 기간은 노동직의 경우 최소 7일 최대 14일이며 사무직의 경우에는 최소 1달 최대 6개월 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벨기에는 고용인을 해고할 때 고용인이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고 기간을 해당 고용인의 근무 연한과 직급에 따라 다르다. 고용인에 해고를 통보하는 방법은 서한으로 등기로 전달해야 한다.

중대한 과오에는 통보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거나 무리한 언행, 폭력 행위 등으로 업무 분위기를 흐려 놓는다는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오”라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재판의 경우 판사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한다.

나. 인력

벨기에 총 인구는 1,0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활동 인구(16-65세)는 700만 명으로 총 인구의 66%이나 실질 고용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 고용 인구 중 약 17.9%는 상업(소.도매) 및 통신, 11.9%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금융, 부동산, 기업 서비스는 11.8%, 공무원과 국방, 병원 등 비 상품 서비스는 27.3%, 실업률은 8.3%(2010년)이다.

벨기에는 임금 수준이 높고 실업 수당도 높아 실업 수당보다 약간 높은 봉급을 제안할 경우 일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분야의 현지 투자는 적당치 않다. 그러나 벨기에는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는 물론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등 보통 3-4개국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외국인 기업이나 기관들은 브뤼셀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요 이유로 이점을 꼽고 있다.

다. 임금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이란 공식적으로 <보장된 평균 월 최저소득>으로 사기업의 고용주가 21세 이상의 풀 타임 고용 시 피고용인에게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최저 임금이 규정된 것이 아니며 1975년부터 노사협약에 의해 원칙이 결정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 1,443.54유로: 21세부터(gross salary 로 피고용인의 원천소득세와 사회보장세기 공제 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
- 1,481.86유로: 21.5세부터/근로연한 6개월
- 1,498.87유로: 22세부터/근무연한 1년

(자료 : Conseil National du Travail)

1991년 벨기에 노사협약은 21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 임금제를 도입, 21세 최저 임금에 기준하여 16세 근로자는 21세 근로자 수준의 70%부터 시작하여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6%가 추가된다.

벨기에의 임금 수준은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4위로 높은 수준 이다. 벨기에의 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평일의 초과 근무 수당은 임금의 5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수당은 100%이나 이 경우에도 산업별 노사 협약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에 대해 월 급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연말에(13개월 분 월 급여) 지급한다. 최대 법정 근무 시간은 주당 5일, 38시간이다. 초과 근무는 법규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으며 일정한 상황에서만 특별히 허용된다. 근무 시간은 노동력의 재분배와 작업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융통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이 최대의 현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취업 허용을 뜻하는 이민 문제에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기술자나 집행 간부급 인력이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는 정상적 사유가 입증될 경우에는 당국의 노동 허가를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Deloitte 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가 EU 국가 가운데 고급 인력의 외국인 취업이 가장 용이한 국가로 나타났다.

마.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

1) 현지인 사회보장

- 벨기에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보장의 범위는 직업인에 대한 의료, 실업, 노후(연금), 산재 및 직업병이며 가족 수당과 의료 보험 등으로 직업인의 가족까지 확대된다. 실업 및 의료 보장 기금은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기 할당된 몫을 지불한다.
- 사회보장 기금 지불은 의무화되어 있다. 근로자의 사회보장 기금의 분담액은 총 급여(gross salary)의 13.07%이며 고용주의 분담액은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38.44%,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32.34%이다.
- 고용주는 고용인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고용주 분담 총액을 사회보장국(Government Social Security Agency)에 분기마다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 세를 지불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법적 구속을 받는다.

2)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 EU 역외 국적의 비거주인(non-EU-residents)이 벨기에에서 근무할 경우 비거주인의 국가와 벨기에와의 협정 여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적용되어 벨기에 사회 보장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예를 들어 외국인 법인의 현지 지사 책임자로 파견 근무할 경우)
- 한국 국적인의 경우에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서명되었으나 아직 벨기에 의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 상사의 임시 파견 직원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벨기에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단, 주재 상사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거주 교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8. 조세제도

가. 개요

벨기에 조세는 연방 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재무부와 세무 당국은 조세법을 수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으나 실제로 재무부의 조세법에 대한 해석이 조세 수행에 중요하다. 한편,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최고법원의 판례도 중요하다.

한편, 벨기에의 조세 행정은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조세 구조는 연방세, 주세, 지방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연방세가 총 조세의 거의 90%를 점하고 있다.

소득세는 'Code des impôts sur les Revenus/Wetboek der conkomsten-belastingen'에 조정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소득세를 관장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 'Administration des Directes/Administratie des Directe Belastingen'와 여러 개의 지방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나. 조세

조세 종류는 직접세(법인세, 개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조세, 각종 등록세), 기타세(상속세, 증여세, 환경세, 구청세 등)가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일부 등록세와 환경세는 연방정부 소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지방정부 소관이다.

벨기에 조세 수입 별 GDP 비중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조세/준조세수입	43.3	43.7	42.9	43.4
직접세	16.3	16.6	15.2	15.6
간접세	12.7	12.6	12.6	12.9
사회보장세	13.6	13.9	14.4	14.2
자본세	0.7	0.7	0.7	0.7
비조세수입*	4.9	5.1	5.3	5.5
총 수입	48.2	48.8	48.1	48.9

주: * 소유, 상품/서비스 판매, 이전에서 오는 수입,

자료: 벨기에 중앙은행

1) 개인세

벨기에 거주자의 소득(국내, 국외 포함)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의 소득에는 부동산 소득, 근로자의 경우 봉급 및 수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 소득을 비롯한 여타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

이 중 다양한 소득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상적 직업 활동 지출 비용을 포함하여 특별 지출, 개인 지출 및 보수(allowances)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순 과세 소득(net taxable income) 세율은 소득에 따라 0-50% 사이이다.

- 0~7,290유로 까지: 25%
- 7,790~10,380유로 까지: 30%
- 10,380~17,300유로 까지: 40%
- 17,300~31,700유로 까지: 45%
- 31,700유로 이상: 50%

비거주자나 일정 파견 근무 외국인은 벨기에에서 수행한 직업 활동에서 기인하는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다. 벨기에 회사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외국 경영자(Executives)와 벨기에에 납세자로서의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영자 또는 벨기에가 그들의 경제적 거점이 아닌 경우에는 벨기에 근무 초기에 벨기에 재무부에 특별 세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벨기에 재무부가 파견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은 주택 임대 초과 분, 이사 비용과 정착 비용, 자녀 학비 등 일정한 지출과 해외 출장 비용 등 해외에서 일어난 직업 활동에 대한 모든 수당은 과세 소득에서 공제된다

2) 법인 소득세

벨기에 법인에 대해서 벨기에 내외의 전체 소득을, 그리고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벨기에 내의 소득 및 국외의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명목 세율은 33%이다. (97년부터 경제진작세 3%를 추가, 실제적으로는 33.99%) 단, 과세 대상 수익이(taxable profit) 332,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 조건의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0~25,000유로 까지: 24.25%
- 25,000~90,000유로 까지: 31.00%
- 90,000~322,500유로까지: 34.50%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품과 서비스 조달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고객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생되어 최종 단계까지(소비용품일 경우 소비자가 최종 부가가치세를 지불한다)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각 단계의 거래자는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즉 스스로 추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를 지불한다. 그러나 최종 부가가치는 소비자가 지불하므로 기업이 각 단계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환부를 받는다.

역 외산상품 수입 시에도 수입상은 수입 상품가격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나 나중에 환부 받는다.

부가가치세율에는 21%, 12%, 6%가 있으며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1%이다. 예외적으로 수돗물, 약, 꽃집에서 파는 꽃, 장애인 용품, 병원 치료, 장례 서비스, 호텔 투숙, 오물 제거, 문화, 교통 서비스에는 6%가,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부 노동 집약적 분야(예: 자전거 수선, 헤어 살롱, 주택 개축, 서민주택 건설 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정상 세율보다 낮은 12%가 적용된다. 신문, 잡지에는 0%가 부과된다.

최근 벨기에 정부는 2011년 8월1일부터 민간주택 수리, 개축공사와 더불어 양로원, 학교기숙사, 정신병원 건물, 노숙자 숙소 건물 신축, 개축, 수리 공사에 부가가치세율 6%를 적용기로 했다.

4) 기타 세제

담배, 주류, 휘발유, 석유, 등유, 미네랄워터, 맥주 등에 특별세로 물품세(accise)가 부과되며, 재사용 포장재를 제외한 재생 포장재와 가전제품에 환경세가 부과된다(가전제품 환경세는 폐기처분 비용 충당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며 소비자 구매가격에 별도로 추가되며 세액은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다).

5)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정부(벨기에는 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3개 지방정부)가 관할하며 지방마다 조세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지방세로는 게임세, 맥주/카페 개점세, 부동산세, 상속세, 부동산 이전 등록세, 임대세, 자동차 주행세, 환경세, 비어둔 건물에 대한 세 등이 있다.

6) 구청세

각 구청에서 관할하는 조세 종류로는 오물세, 건축대지 허가세, 별장세, 공동묘지 사용세 등이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벨기에에서는 외환 관리 정책의 하나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는 따로 없다. 또한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 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유럽금융위기 때문에 이 같은 외환관리제도가 변경된 사항은 없다.

과거 공식 외환 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 시장(THE FREE MARKET)의 2중 구조는 1990년 3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되었다. 1961년 2월 15일에 IMF 제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 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외환사무국(L'INSTITUT BELGO-LUXEMBOURGEOIS DU CHANGE: MBLC)이 최고 외환 관리 기관으로서 외환 지급 및 이전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나 외환 지급 및 이전 업무 기능은 일반 은행에 위임되고 있다.

나. 자금 조달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은행 융자다. 기업은 벨기에 은행 이외에도 증권시장(EURONEXT BRUSSELS)에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1) 은행

벨기에에는 현재 총 104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중 벨기에 법인 은행이 54개, 외국 법인 은행이 50개 있다. 한편 EU 서비스 활동 자유 규정 하에 통보된 은행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495개가 있다. 벨기에에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국토 크기에 비해 은행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라 은행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하다. 즉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벨기에 소재 은행의 기업 대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기간 말 기준)

기간	총액
2012년 1월	116,737
2011년 4분기	116,076
2011년 3분기	115,695
2011년 2분기	116,729
2011년 1분기	112,545
2010년 4분기	112,607
2010년 3분기	116,576
2010년 2분기	110,866
2010년 1분기	108,531
2009년 4분기	106,354
2009년 2분기	105,501

자료: 벨기에 중앙은행(기업대출조사부, Observatoire du credit aux sociétés, 2012.3월)

벨기에 소재 대출 은행의 외국인 대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기간 말 기준)

기간	총액
2011년 4분기	85,073
2011년 3분기	97,124
2011년 2분기	97,535
2011년 1분기	99,139
2010년 4분기	97,916
2010년 3분기	123,249
2010년 2분기	141,331
2010년 1분기	161,373
2009년 4분기	163,131

자료: 벨기에 중앙은행(2012.3월)

2) 정부투자기관

각 지방정부는 투자기관을 두고 해당 지방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일정기간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벨기에 기업과 벨기에 법인으로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기업 사이에 차별대우는 없다. 지방정부의 투자기관으로는 SRIW(왈로니아지방정부), GIMV(플란더스지방정부), SRIB(브뤼셀 지방정부)가 있다.

2009년 4월 3일 지방 법으로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금융위기 결과 은행 대출 조건이 경직되어 특히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책으로 기금(Caisse d'investissement de Wallonie)을 발족했다. 동 기금에 투자하는 개인은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벨기에는 인구 1,097만 명이 조금 넘는데, 1인당 국민 소득(2011년 기준)은 약 32,332유로로 EU-27 회원국의 평균지수를 100으로 할 때 벨기에는 119로 EU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271), 노르웨이(181), 네덜란드(133), 아일랜드(128), 덴마크(127), 오스트리아(126), 스웨덴(123) 다음으로 높다(지수는 2010년 12월 말 기준, 자료 : EUROSTAT)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중계 무역과 가공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무역 의존도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총 무역액은 6,044억 유로(수출 3,102억 유로, 수입 2,942억 유로)에 달한다.

이 같이 벨기에 교역 규모는 영토 면적과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출의 73.1%, 수입의 69.9%(2010년 기준)가 EU 회원국 간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EU 역 외국과의 교역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벨기에의 연간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약 15,000 유로로 EU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와 같이 상위 그룹에 속한다. 벨기에의 세율이 세계에서 3, 4위를 다룰 정도로 세율이 높은 국가인 대신 그만큼 사회보장도 잘된 국가다.

사회보장 세율은 봉급(gross)의 총 45.41%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나누어 부담하며 부담 비율은 각각 32.34%, 13.07%이다. 사회 보장에는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 직업병, 장애자 수당, 장기 병환으로 인한 근무 불가능 시 수당 등이 포함된다. 또 한편으로는 무소득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빈부차가 가장 낮고 빈민자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도로, 철도, 해운 등 교통망과 통신망이 발달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 전화 등 인프라 구조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임금과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GDP대비)가 세계 상위에 속한다.

또한 우리 수출업체는 벨기에 수입업체에게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벨기에 부가가치 세율이 21%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나. 시장 특성

벨기에 시장은 전세계 수입 상품이 모여드는 곳으로 테스트마켓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품의 품질, 가격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다. 특히 내구 소비재(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므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벨기에 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작고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이다. 그러나 국민 소득은 높지만 조세율이 높아(조세 부담률 약 GDP의 48.3%) 실질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제한되어 일반적으로 충동적 구매를 피하고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비교, 심사 숙고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경제위기로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벨기에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모든 학교가 2주간 방학) 장난감이나 오락기기 책, 비디오, CD 등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소형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장식품 등 성인용 선물 용품의 70%는 새해, 크리스마스, 어버이날, 성 밸런타인데이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판매된다. 한편, 입학 시즌인 9월을 전후로 학생용 문방구, 책가방, 의류 등의 판매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또한 1월에는 동계 바겐세일, 7월에는 하계 바겐세일로 재고품이 판매된다.

벨기에에는 소비자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며 동 연맹은 상품의 품질/가격을 비교할 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도와 위생 면을 심층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를 통해 발표한다. 동 월간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도 동 소비자 단체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다.

유통 업체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고수키 위해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언론을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된 상품은 정부 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의 반응이 있기 전에 자율적으로 미리 철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통 업체들은 환경 측면과 소비자 안전 및 건강 면에서 세심히 검토한 후 상품을 선정한다.

근래 유기농식품을 비롯하여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벨기에 소비자 구매성향 연구소(Crioc)이 조사한 앙케트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 벨기에 10가구 중 5가구가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여 유기농 식품 매출액이 4.2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벨기에정부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 상품 구매를 장려키 위한 조치의 하나로써 고용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근로자에게 환경제품 구매권(ECO-CHEQUE이라고 칭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제품 구매권 액수는 연간 250 유로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고용주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2010년)으로 향후 친환경 제품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다. 우리 수출 업체의 유의 사항

1) 라벨링

벨기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품 라벨링은 반드시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로 모두 표시되어야 한다.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자석함유 완구는 2008년 9월 1일부터 판매 금지다. 즉, 마그네틱을 함유한 완구를 벨기에 시장을 포함하고 EU 시장 내에서 판매하려고 할 경우 완구에 반드시 자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완구는 모든 자석 완구로 즉, 자석을 부착했거나 함유한 완구뿐 아니라 자석 부분품을 포함한 완구까지도 해당되며 자석을 빼었다 끼었다 할 수 있는 완구도 해당된다.

경고 라벨은 포장이나 완구 자체에 부착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되어야 한다.

2) 독점권

벨기에 시장은 인구 1,060만 명이 조금 넘는 협소한 시장이므로 일반적으로 현지 수입업체의 시장 관할 범위는 최소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합친 베네룩스 3국이다. 한국 상품을 수입하려는 현지 수입업자 가운데 최소 베네룩스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는 수입업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3) 소량 발주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세계에서 많은 상품들이 집합되는 곳이므로 소비자들의 요구가 까다로운 한편, 시장은 작기 때문에 현지 수입상들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려고 여러 모델을 주문하다 보니 각 모델마다 소량으로 다중 소량의 주문이 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로서는 발주가 어려운 점도 있다.

4) 결제

대 동남아 수입 경험이 많은 대규모 수입상들은 L/C 무역 결제에 익숙해져 있으나 인근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역외 무역을 처음 시도하는 수입상들은 L/C, 통관 절차 등 국제 무역 거래 방식에 어둡고 유럽의 전통적인 대금 지불 방식(물품 인수 3개월 후 지불)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를 제시할 때 FOB보다는 CIF로 제시하고 FOB으로 제시할 때는 반드시 운송료와 보험료가 추가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로 도입 이후 현지 수입 업체들은 가격 제시 때 달러보다는 유로화를 선호하므로 우리 업계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라. 유통 구조

원자재, 반제품, 소비자 제품을 총망라한 벨기에 도매업의 연 매출액은 약 1,363억 유로에 달하며 소매업의 매출액은 약 719억 유로로 민간 소비의 약 50%를 차지한다. 소매 매출 중 식품이 244억 유로로 1/3 이상을 차지하고 의류 및 가정용 섬유 제품은 113억 유로, 가구와 기타 가정 용품은 약 119억 유로, 나머지 240억 유로는 기타 소비 제품이다. 도매 업체 수는 약 5만 5,000개, 소매 업체는 약 1만 5,000개에 달하고 이들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GDP의 10%를 초과한다.

소매업은 자영 독립 상점과 슈퍼마켓 및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 유통업체에 속하는 체인 상점으로 구분되는데 매출 비중은 전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유통 체인이 차지한다. 그러나 특히 식품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38%)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비식품 분야는 아직도 독립 상점(84%)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섬유와 일반 가정 용품의 판매는 자영 소매업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88%).

전통적 유통 구조는 제조업체(수입상)→도매상→소매상→최종 소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 업체가 발달됨에 따라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흔히 있는 오퍼상과 같이 수출입 대행만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고 수출입 업체가 취급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고유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수출입, 판매, 서비스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한편, 유통 마진은 제품에 특수성에 따라 다르나 완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상이 100으로 수입한 제품을 대형 슈퍼마켓에 대량 공급할 경우, 수입상이 슈퍼마켓에 제공하는 도매 가격 180~200 정도이고 슈퍼마켓은 소비자에게 380~400에 판매한다. 수출입상이 도매상을 거칠 경우 수출입상은 도매상에게 140~150에 넘기고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넘기는 가격은 200~210정도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420 정도에 판매한다.

마. 유명 유통업체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창고형 매장, 대형종합 슈퍼마켓, 백화점이 전국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유통업체로는 식품만 파는 슈퍼마켓과 식품, 의류, 신발, 가전제품, 학용품, 레저용품, 가구 등 소비제품 전반을 판매하는 대형 종합 슈퍼마켓 백화점, 식품을 제외한 소비 제품을 파는 백화점, D.I.Y 전문점, 가전제품 전문점, 정원용품 전문점 등이 있다.

벨기에는 슈퍼마켓의 확장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 그룹들은 상점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전문제품 판매 위주의 전문점으로 분리해 다양화하고 있다. 벨기에의 주요 일반 유통 업체로는 DELHAIZE LE LION, Carrefour, COLRUYT, ALDI, MAKRO, CORA, MESTDAG, Liedl 등이 있다.

유명 의류 체인으로는 ZARA, H&M, BENETTON, C & A, Mango, Alain Manoukian, Mer du Nord, Chine Collection, WE, JBC, MS Mode, SuperConfex 등이 있고 신발 전문점으로는 March, BRANTANO, Shoe Post, Shoe Discount, ERAM, Shoes in the Box, Shoe Looker 등이 있다.

스포츠, 레저용품 전문 유통업체로는 DECATHELON, INTERSPORT가 있고 D.I.Y 유통 체인으로는 BRICO, GAMMA, HUBO, LE ROI MERLIN 등이 있다.

바. 한국에 대한 인식

2011년 6월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팬의 열광적인 요구에 따라 K-POP이 연장 공연을 한 바 있다. 벨기에 공연은 아니지만 벨기에 많은 팬들이 파리 공연에 참가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근래 한국 영화도 간느 영화제를 비롯한 유럽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고 저력을 발휘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만화도 만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한류의 전초지가 되어 프랑스에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이 영국과 독일, 벨기에 등 유럽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국가 전반의 이미지 향상으로 한국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사. 유망 상품

□ 그린 에너지 장비

2008년에 벨기에 그린 에너지 시장 규모는 약 30억 유로에 달했는데 2009년에는 전년보다 20% 이상이 증가한 37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업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벨기에 그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린에너지 장비 및 기기 생산활동으로 제조 활동이 83%(약 25억 유로, 2008년 기준)를 차지한다. 벨기에에는 115개 업체가 그린에너지 생산 및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Agoria).

그린 에너지 장비로는 히팅 펌프 제조가 주류를 이루고(15억 유로) 있으며 동 분야의 1위 업체는 일본 그룹 Daikin이다(현지에 대규모 생산 공장 보유). 그 다음으로는 풍력에너지 장비 제조가 약 6억 유로의 매출을, 태양광은 약 2억 유로의 매출을 내고 있다.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또한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PVQUAL 이라는 품질 보장 마크를 만들었으며 현재 동 마크에 가입한 업체 수는 거의 160 개 업체에 달한다.

2. 물가정보

(1유로 = 1.32달러 / 2012년 2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유로)
식품류	쌀 1kg	3.70
	계란 12개	3.60
	쇠고기 등심 1kg	28.90
	돼지고기 등심 1kg	5.90
	우유 500ml	1.00
	식용유 1L	3.05
	생수 1L	1.12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7.49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8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6.80
	김치찌개 1인분	16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4,69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26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6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7,100
	무연휘발유 1L	1.715
	자동차 등록비(폐지)	0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2,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4.6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2.0
	시내버스 기본요금	2.0
	택시 기본요금/km(낮/밤, 승차요금임)	2.40/4.4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244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7442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2843
	인터넷 월 사용료 (ADSL 기준)	45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5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3,55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6,75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8,45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39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61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 급여)	2,5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 급여 초임)	1,800
	매니저 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 급여)	3,500
	주당 법정근무시간	38
	출산휴가일수	105
	연간 국경일수	9
	주5일 근무 여부	주 5일 근무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27

3. 바이어 발굴

가. KOTRA를 통한 바이어 발굴

Kotra에서는 전 세계 해외무역관(76개국 111개소)을 통해 해외 바이어 찾기,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형 및 수수료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수수료(VAT포함)
바이어 찾기	수출희망품목의 잠재바이어 발굴	150,000 원
맞춤형시장조사	해외시장의 수요/수.출입/생산/경쟁동향/ 수입관세율.소매가격/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기타 등 조사	110,000원/항목
바이어연락처확인	해외바이어의 셀레존재여부, Contact point 등 조사	무료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수입희망품목의 잠재공급선 발굴	220,000 원
바이어 Follow-up service	동 서비스는 바이어찾기 무료 A/S 종료 후 바이어찾기 바이어의 반응 및 교신 등 F/U지원 서비스	150,000 원

- 절차: 고객(인터넷 신청)→무역관(조사가능검토)→본사(조사가능 시 고객에게 견적서 송부)→고객(수수료 입금)→무역관 및 본사(조사 완료 및 결과 보고서 송부)→고객(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문의처
 - 서울: 송귀혜(02-3460-7737)
 - 경기.제주.대전.충남: 신효기(02-3460-7388)
 - 그 외 지역: 이수미(02-3460-7383)
 - 웹사이트 : <http://www.kotra.or.kr>

나.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산업 협회

- 식품: <http://www.fevia.be>
- 보험: <http://www.upea.be>
- 은행: <http://abb-bvb.be>
- 시멘트: <http://www.febelcem.be>
- 벽돌: <http://www.brique.be>
- 화학: <http://www.essencia.be>
- 제약: <http://www.pharma.be>
- 의료기기 : <http://www.unamec.be>
- 유통: <http://www.fedis.be>
- 기계, 전기, 전자, 환경: <http://www.agoria.be>
- 의류, 봉재: <http://www.belgianfashion.be>
- 제지: <http://www.cobelpa.be>
- 철강: <http://www.steelbel.be>

- 섬유/가구: <http://www.fedustria.be>
 - 유리: <http://www.vgi-fiv.be>
- (주소, 전화번호, 팩스, 조직 등 정보는 각 산업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2) 매체(전문 잡지)

□ 홈페이지: <http://indumedia.be>

금속 공업, 산업 자동화, 자동차 수리 및 보수, 건설, 비 식품 소매업, 식품 소매업, 이벤트 마케팅 분야의 전문 잡지를 발간한다. 인터넷 구독이 가능하다.

- 금속공업: www.metallerie.be
- 산업자동화: www.motioncontrol.be
- 자동차 수리: www.carfix.be
- 도로운송분야: www.transfix.be
- 식품공업분야: www.foodprocessing.be

□ 홈페이지: <http://www.retail-argus.be>

가정용품 전문잡지이며 동 잡지를 통해 현지 시장에 나오는 신모델 제품이 무엇인지 어떠한 디자인 제품이 인기인지 알 수 있다. 인터넷 구독도 가능하다.

3) 전시회

- 정원 용품 및 주택 장식 용품(Gardening and decoration fair)
 - 주최 업체명: Rham Organisations(<http://rham.be>)
- 자동차 전시회
 - 주최 업체명: 자동차 협회(<http://febiac.be>)
- 농업, 원예, 사육 전시회(AGRIBEX)
 - 주최 업체명: fedagrim(<http://www.agribex.be>)
- 건축전시회(BATIBOUW)
 - 주최 업체명: FISA(<http://batibouw.com>)
- 건강보조용품 전시회: LIFE 2
 - 주최 업체명: ARTEXIS (<http://www.artexis.com>)
- 자동차 부품 전시회(AUTOTECHNICA)
 - 주최 업체명: AUTOTECHNICA(<http://www.autotechnica.be>)
- 치과용 장비 전시회(DENTEX)
 - 주최 업체명: Dentex International(<http://www.dentex.be>)
- 수산물 전시회(SEAFOOD PROCESSING EUROPE)
 - 주최 업체명: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http://www.euroseafood.com>)

- IT & TELECOM 전시회(TELECOM CITY)
 - 주최 업체명: TMBA Business Events(<http://tmba.be>)
- 선물용품 전시회(EUROPACADO)
 - 주최 업체명: DECOFLEUR(<http://www.europacado.be>)
- 섬유전시회(DECOSIT)
 - 주최 업체명: Textirama(<http://www.decosit.com>)
- 가구 및 실내장식 장비 전시회(COCOON)
 - 주최 업체명: ARTEXIS([HTTP://www.artexis.com](http://www.artexis.com))
- 기업용/판촉용 선물 전시회(Business Gifts)
 - 주최 업체명: easyFairs([HTTP://www.easyFairs.com/GIFTS-BE](http://www.easyFairs.com/GIFTS-BE))
- 의료, 건강용 기기 전시회(HealthCare)
 - 주최 업체명: easyFairs([HTTP://www.i2c.be](http://www.i2c.be))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바이어 디렉터리

- <http://www.abc-d.be>
- <http://www.pagesdor.be>
- <http://www.trendstop.be>
- <http://www.europages.com>
- <http://www.trademart.be>
- <http://www.topbouw.be>
- <http://www.compass.com>
- <http://www.retail-argus.be>

2) 산업별 디렉터리

- 식품: <http://www.fevia.be>
- 보험: <http://www.upea.be>
- 은행: <http://abb-bvb.be>
- 시멘트: <http://www.febelcem.be>
- 벽돌: <http://www.brique.be>
- 화학: <http://www.essenscia.be>
- 제약: <http://www.pharma.be>
- 유통: <http://www.fedis.be>
- 기계, 전기, 전자, 환경: <http://www.agoria.be>
- 의류, 봉재: <http://www.belgianfashion.be>
- 제지: <http://www.cobelpa.be>
- 철강: <http://www.steelbel.be>
- 섬유/가구: <http://www.fedustria.be>
- 유리: <http://www.vgi-fiv.be>
- 의료 기기 : <http://www.unamec.be>
- 인터넷 거래 : <http://www.becommerce.be>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1) 상담 요령

벨기에 비즈니스맨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거래를 원한다. 즉, 상담 시 제품의 원자재, 생산기술, 특성, 성능, 경쟁 제품과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차이점 등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거래 조건, 마케팅 전략 등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대답을 망설이거나 현실에 걸맞지 않는 가상적인 대답을 하면 거래 파트너로서의 신빙성을 상실하여 향후 비즈니스 거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전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잠재적 시장 변동에 따른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환율 변동,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변동, 운송비 변동 등 수출가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 가까운 미래의 변동을 예상하여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오름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일단 현지 수입업자에게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L/C를 열린 상태에서 환율 변동 또는 운송비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 한국 수출업자의 신용은 물론 현지 수입 업자도 그의 고객에 대한 신용 상실로 판매망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식탁에서 소리를 내어 트림을 하거나 음식 먹는 소리를 지나치게 내고 연성을 높여 말하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쉽다. 술을 강요하거나 특히 상대방이 무슬림 이거나 유대인인 경우에는 돼지 고기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금물이다. 현지인들은 개인 생활과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공휴일, 주말(토, 일), 휴가 중 접촉은 피해야 하고 호의를 베풀 때도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묻고 독단적인 태도는 피하며 사생활이나 종교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초대를 받거나 식사를 함께 나눌 때도 상대방이 다 먹지 않았는데 일어날 채비를 하거나 일어나는 것은 기본 에티켓에 벗어나는 행동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큰 소리로 부르며 빨리 음식을 달라고 재촉하는 등 분위기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삼가야 한다. 시간이 없더라도 성급함이나 조급한 모습으로 적당히 대답하고 나중에 보자는 태도, 또는 상담 중 화를 내거나 돈을 꺼내고 다리를 꼬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나.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벨기에 기업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제시한 조건을 변경하면 아주 싫어할 뿐 더러 그러한 경우가 자주 있을 경우 신용 거래가 어렵게 되고 차후 신용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첫 거래 시 수출 가격이나 발주 기간, A/S 부품 공급 등 거래 조건을 제안할 때 후에 변경이 없도록 엄중히 검토하고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예상되면 이를 사전에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일로 현지 수입상이 손해가 생겼을 경우 신속 하게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는 향후 거래 관계 발전을 좌우한다. 또한, 현지 업체가 특정 사양을 요구할 경우, 기술상 생산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황 설명과 함께 서슴지 말고 거절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 거래 신용상 훨씬 바람직하다.

결제 방식과 관련, 동남아 수입 경험에 많은 대규모 수입상들은 L/C 무역 결제에 익숙하여 L/C 대금 지불을 요구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로 인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장거리 해외 무역을 처음 시도하는 수입상 가운데에는 L/C나 통관 절차 등 국제 무역 거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상품 인도에 앞서 상품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꺼려하는 수입상들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물품 인수 후 3개월 지불이 통용되므로 동일한 대금 지불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T/T 대금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주문 시 또는 상호 간 신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T/T 대금 지불 방법을 꺼려하고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불 방법을 제시할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물품 인도를 보장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용 면에서 중요하다.

다. 역사적 / 문화적 금기 사항

벨기에는 언어를 기준으로 남부 프랑스어지역과 북부 네덜란드어지역으로 크게 나뉘며 인종도 언어에 따라 라틴 계열과 게르만 계열로 구분된다. 이처럼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인데 최근 언어권 간 긴장이 더욱 팽팽해지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프랑스어지역 바이어에게 네덜란드어로 인사를 건네거나 반대로 프랑스어로 네덜란드어 지역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경우 이들이 당황스러워하거나 불쾌해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초면의 경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무난하다.

벨기에는 가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신교 및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종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고 종교는 극히 개인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비즈니스 석상에서 종교 관련 토론이나 질문, 개인적 평가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친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인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슬람계나 유대인 비즈니스맨일 경우, 레스토랑에서 돼지고기 음식을 권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투자 시 애로 사항

벨기에 국가 체제가 1993년 이후 완전히 연방 체제로 변형되면서 연방 정부는 통화, 세제, 사회보장 제도, 외교 등 국가 주체성과 직접 연계된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그 외 분야는 지방 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폴란드, 왈로니아, 브뤼셀의 3 지방 정부가 해당 지방의 외국인 투자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벨기에 전 지역을 한 눈으로 분석할 수 있게 일관성 있고 총괄적인 정보 입수가 어렵다. 그리고 투자에 적합하고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지방 정부 당국을 접촉해야 하므로 다소 복잡한 점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위해 지방 정부 간 경쟁 분위기에서 투자자는 각 지방 정부 당국과 투자에 따른 투자 지원 혜택을 협상할 수 있고 지원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와 수준, 환경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방 정부 당국을 접촉, 장단점을 심층 분석한 후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나. 우리 기업이 느끼는 애로 사항(비관세 장벽)

굴삭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 경우: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 장비의 부품 사양이 달라지고 부품 공용화에도 저해가 되어 생산성 저하 및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아울러 인증 기관에 인증 비용도 지불하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국가별로 기종당 약 10,000유로 소요).

또한 중고 장비 수입 제한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벨기에에는 아니지만 영국과 같은 일부 EU 국가에서는 별도 Newness Certificate 요구하여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설령 벨기에에서 CE 마크 외 다른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벨기에 투자 기업은 벨기에 시장뿐 아니라 유럽 전 시장의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동일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CE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현지 A/S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문제들이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EU 고유의 안전/환경 형식승인 또한 한국 차 진출의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U집행위는 최근(2011.9.6)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015년부터 판매될 신규 모델 자동차에 e-Call 장비를 내장하도록 하고 있다.

E-Call 장비란 사고 시 구호대의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자동 긴급 이동통신시스템으로 사고 당사자가 의식을 잃어 직접 경찰에 전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e-Call 장비가 자동 스위치 되어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규정으로 앞으로 EU에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EU당국의 규격 장비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EU의 특수 규정은 특히 비용 면에서 진출 장벽 요소가 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투자진출 성공 사례

1) 현대 유럽 부품 센터(HMEP: Hyundai Mobis Europe Parts)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동북방으로 약 65km 떨어진,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루멘(Lumen) 시에 위치하여 그리스, 구 소련권을 제외한 전 유럽 시장의 총 64개 대리점에 현대 순정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HMEP가 위치하고 있는 벨기에는 다국적 기업의 구주 본사가 위치해 있고 안트워프 항구, 브뤼셀 공항 및 완벽한 고속도로망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물류 지역이다. HMEP는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지만 HMEP 설립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인 아웃소싱을 선 도적으로 도입, 운영한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HMEP는 세계 최대 부품 물류 전문회사인 캐터필러 로지스틱스(Caterpillar Logistics)와 물류 위탁 계약을 체결, 물류 및 재고 관리를 아웃 소싱하는 한편 HMEP는 핵심 업무 즉, 판매 및 마케팅, 기술 사양 관리, 제품 개발 및 구매 관리, 대리점 관리 및 지원, 재무 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사 역량을 비즈니스에만 집중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1998년 연 매출액 4,100만 유로로 시작한 HMEP는 현재 105,000sqm 부지에 49,000 sqm의 창고를 보유하고 14만 피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벨기에 Lumen 외에도 독일(Brehna), 영국(Tanworth), 스웨덴(Jönköping)에 유럽의 각 권역별 소규모 위성 창고를 건립해 유럽 전역의 배송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2) 두산 인프라코어(Infracore) 유럽

브뤼셀에서 승용차로 45분 거리인 플라메리(Flamer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샤를르 드골(CDG) 공항까지도 2시간 남짓 소요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두산 인프라코어 유럽은 당초 대우중공업이 1990년 설립한 유로대우(Euro Daewoo)를 인수한 것으로 지게차(Forklift) 등 건설용 중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인은 벨기어를 포함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주요 지역의 현지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지역 본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 고용 인원만 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규격 요건 등을 충족시키며 견실한 매출을 실현하고(2009년 매출액 280 백만 유로, 2010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133백만 유로로 감소) 연간 2,000대의 중장비를 생산하여 유럽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벨기에에서는 거주지 주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외국인 거주 등록, 의료보험, 은행 계좌 개설, 은행 대출, 전화, TV, 인터넷 신청, 자동차 등록, 자녀 학교 등록, 이삿짐 인수 등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 지역을 다니면서 'A LOUER' 또는 'TE HUUR'라는 주황색 광고가 붙어있는 곳에 가서 광고판에 서술된 집의 구조 및 접촉자 명과 전화번호, 또는 신문 광고를 보고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언어가 잘 안 통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부동산업자(복덕방)를 통해 구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벨기에에서는 집주인이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벨기에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아파트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업자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주차장 임대료를 별도로 지불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주인이 종종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업자에게 그런 집은 제외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 계약 시에 집주인과 임차인은 집의 상태를 기재한 'L'Etat de lieu'를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tat de lieu'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입회 하에 작성될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 작성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비용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L'Etat de lieu 리포트 가격은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400-500유로 정도다. 임대 계약 만기에 입주 당시 아파트 상태와 퇴거 때 상태를 비교하여 상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수나 수선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2개월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현금 또는 집주인 계좌로 이전하지 말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할 특별 계좌를 개설, 보관해야 퇴거 때 환불 받기가 쉽다. 동 보증금은 퇴거 때 그 동안 살다가 손상된 부문에 대한 보수, 수선 비용으로 할당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 복덕방 사이트는 <http://www.vlan.be>, <http://www.immoweb.be> 등이 있다.

나. 외국인 거주 가능 지역

벨기에에는 치안이 어느 도시나 비교적 잘 된 안전한 국가다(물론 지역을 막론하고 좀도둑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테러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폭행, 살인 등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는 드물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구분해야 할 만큼 신변 보호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주위 환경이나 보안 측면에서 쾌적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브뤼셀과 안트워프 도시의 구역은 다음과 같다.

- 브뤼셀: Uccle, Woluwe St. Pierre, Woluwe St.Lambert, Audergem
- 브뤼셀 근교: Tervuren, Waterloo
- 안트워프: Schoten, Schilde, Zoersel, Brasschaat

다. 행정 절차

집을 구하고 나면 해당 구청에 가서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 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화되어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2매)이 필요하다. 외국인 거주 등록 신청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까지는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라. 전화 신청

주거지 관할 전화국에서 신청하면 되나 인계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화기는 전화국에서 빌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는 것이 유리하다. 근래에는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되어 이동전화만으로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으므로 핸드폰 신청만 할 수 있다. 핸드폰 사용은 통신업체에 정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전화/인터넷/TV의 일명 triple play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Belgacom, VOO, Telenet emd)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 비품 구입

벨기에의 경우 집을 구할 때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찬장 등 주방 시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집기나 비품이 없이 비어 있는 상태이므로 구입해야 할 물건이 많다. 한편, 물가가 비싼 편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가전 제품은 가전 제품 전문 판매점(예 : Media Mart, Vandenborre, Kreffel, Makro 등)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도 상점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V나 VTR을 구입할 경우 한국에 돌아 가 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집기는 집 근처 대형 슈퍼마켓이나 하이퍼 마켓에서 구입하고 가구의 경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조립식 가구를 구입할 경우 IKEA에서 구입하면 된다.

벨기에 가전제품의 정격 전압은 120 볼트이며 전기주파수는 50 헤르츠이므로 현지로 이주할 때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등 대형가전제품은 구태여 새로이 구입할 필요는 없다. 한국 제품의 전기 주파수는 60헤르츠이므로 수명이 길지 않고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 장학금 수혜 제도

한국정부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조함으로써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한국말과 한국문화, 그리고 전문분야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듯이 EU집행위에서도 EU회원국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연수하고 또한 외국인(EU-27이외의 역외국) 학생들이 유럽에 와서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ERASMUS MUNDUS)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하기 사이트에서 전면 입수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education/external-relation-programmes/mundus_en.htm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벨기에는 유럽 대륙에 위치하지만 북해와 접하여 겨울 평균 섭씨 0-10도 여름 평균 12-25도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다. 1년 중 6,7월에 가장 많은 비가 오며 3월이 가장 가물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도 대 홍수를 겪는 사례는 드물고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일도 흔치 않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에 바람이 세고 비와 안개가 잦아 습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니 감기에 조심해야 하고 항상 필요한 비상 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유럽에서는 유럽건강보험카드(EHIC : 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EU-27 회원국과 EFTA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사회보장(의료보험 포함)세를 지불하여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이 다른 국가(EU-27+EFTA국가)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동안 사고나 발병하여 체류국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이 카드만 보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체류국 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또는 외국인의 경우 거주국) 의료보험기관으로부터 치료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지국 거주증이 없이 일시적으로 벨기어를 비롯하여 유럽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에 여행기간 동안 전 유럽을 커버하는 의료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수도인 브뤼셀의 경우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1월 평균 기온 1.5도이며 겨울에 눈이 오는 경우가 드물다. 여름철에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4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출장 시 추천 복장

겨울에는 추. 동복과 오버 코트를, 여름에는 하복을 준비할 것이나 여름이라도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낮 기온이 20도 정도로 하강할 것을 대비하여 가벼운 긴 팔 윗도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 가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온도와는 달리 춥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봄, 가을보다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방수 옷과 우산은 항상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 시간으로 한국이 밤 12시일 때 벨기에는 오후 4시이다. 썸머타임제(3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3시로 변경)를 실시하여 한국과의 시차가 하계 동안에는 7시간으로 1시간 짧아진다. 즉, 한국이 밤 12시일 때 벨기에는 오후 5시이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썸머타임 해제일은 10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3시에 2시로 변경) 다시 8시간으로 정상화된다.

2) 근무 시간

벨기에는 주 5일 근무제이며 일반 직장의 근무 시간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 7:30-17:00가 일반적이다. 토, 일요일은 휴무이다. 구청과 같은 지역 행정 기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30분(점심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며 목요일은 7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도 있다. 우체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중앙 우체국만 토요일 오전 12시까지 연다.

근무 시간은 산업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 5일 37시간 30분이며 아침 근무 시간은 직장마다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다. 관공서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폭을 두고 일찍 근무를 시작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점들의 영업 시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 상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18:00, 슈퍼마켓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20:30이며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금요일에 저녁 9시까지 영업한다. 국경일(휴일)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경일이 낀 연휴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빵집, 꽃가게와 'night shop'과 같은 일부 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다.

은행의 업무 시간은 각 지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6:00이다. 점심 시간(12:00~13:30)에 문을 닫는 지점들도 상당수 된다.

3) 회계 연도

법정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 주요 단위

벨기에에서는 미터법이 공식적으로 통용된다. 모든 도량 기기는 벨기에 경제부 소속 도량부의 인증을 받아야 벨기에 시장에 판매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EU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EU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 단위

길 이	mm	cm	m	km
부 피	-	cm ³	m ³	-
넓 이	mm ²	cm ²	m ²	km ²
무 게	mg	g	kg	ton

□ 벨기에 경제부 내 도량 담당 부서(Métrologie)

- Add : North Gates III, Boulevard du Roi Albert II, 16, 1000 Brussels
- Tel : 32-2-277 80 10, Fax: 32-2-277 54 03
- E-메일 : metrology@mineco.fgov.be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 단기 체류 비자

단기 체류 비자는 최고 90일 동안 베네룩스와 쉥겐 협정(Schengen Treaty)에 따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에 90일 동안 계속 머물거나 또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이들 다수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체류 기간은 여러 국가의 체류 기간을 모두 합쳐 총 90일을 넘을 수 없다. 벨기에와 한국 간 비자 면제 협정에 의하여 관광객(90일 이내 체류 조건)에게는 비자가 면제된다.

□ 입국 때 필요한 서류

- Passport(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하다)
- 필요 시 체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 목적으로는 가족, 친구 방문, 치료, 여행, 문화, 스포츠, 직업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빙 서류는 예를 들어 호텔 예약 서류, 왕복 비행기표, 현지 통화 화폐 또는 현지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 수표, 신용카드, 고용 계약서, 은행 구좌 시트, 사업 등록자 번호, 그 외 직업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며 현지 거주자가 체류 비용을 부담할 경우 현지 거주자의 보증 서류 등이 될 수 있다.

□ 장기 체류 비자(체류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대상자는 취업 목적의 입국자,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현지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 현지에 가족이 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하려는 자, 학생, 현지인과 결혼하거나 동거하기 위한 입국자, 입양아 등이다.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출국 전 반드시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현지 학교 입학신청서와 입학 허가서가 동반되어야 한다. 벨기에에는 학기가 9월에 시작되므로 하기 방학 동안의 휴무를 감안하여 늦어도 6월 말 전에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아야 한다.

□ 벨기에 체류 허가 개선

벨기에 정부는 2007년 4월 27일자로 외국인 체류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3개월 무비자 가능한 외국의 국민이 동 3개월 체류 기간 만료 이전에 취업 허가 또는 취학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장기 비자 취득을 위해 다시 귀국할 필요 없이 바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분이 확실하고 필요 구비 서류를 잘 알고 있는 기업 또는 상사 주재원이 아닌 여타 한국 국민으로서 무 비자로 입국하여 단기 체류 기간 중에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취업 허가 심사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3개월 무비자 체류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입국 전에 취업 허가를 취득할 것을 권고한다. 즉, 3개월 무비자 체류 한도 기간 내 취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 기간 초과로 인해 출국해야 한다.

□ 비자 발급 처: 주한 벨기에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 2동 737-10
- 전화: 749-0381/4
- 팩스: 797-1688
- 휴일: 토, 일요일 및 한국과 벨기에 공휴일
- 영사관 업무 시간: 09-12 시
- 사이트: <http://www.belgium.or.kr>

2) 출입국 절차

출입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여행자의 여권과 손가방을 검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통례이다. 입국 시 일시적 여행 때 필요한 물량의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가방마다 세밀한 검사 없이 통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짐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또는 세관원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상세한 검사를 하므로 특히 비즈니스의 경우 샘플을 가지고 들어 올 때에는 샘플에 대한 서류(송장,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판매가 0의 송장 등)를 제시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3) 출입국 유의 사항

취업 또는 파견 근무의 경우에는 비자와 노동 허가를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사전 발급 받아야 한다.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4) 공항과 시내 교통편

브뤼셀 국제공항(Zaventem)과 브뤼셀 시내 사이의 거리는 약 15km며 교통편으로는 택시와 기차가 있는데 공항 내에 기차역이 있어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기차는 브뤼셀 북역(Gare du Nord, Nordstation)과 중앙역(Gare centrale, Central station), 남역 (Gare du Midi, Zuidstation)에 정차한다.

□ 시간표

공항에서 브뤼셀 시내로 들어오는 기차는 매시 정각과 37분에 있다. 공항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시간은 역에 따라 22-25분이 걸린다.

□ 기차표 가격

- 편도: 4.20유로(2등차), 왕복은 편도 가격의 2배
- 택시는 시내 목적지 거리에 따라 다르나 브뤼셀 국제공항에서 브뤼셀 시내에 들어오는데 드는 비용은 30-40 유로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

마. 환전

벨기에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로 EU 단일 통화인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화폐는 8종의 동전과 7종의 지폐로 구성된다. 동전 단위로는 1,2,5,10,20,50 cents와 1,2 euro가 있으며 지폐 단위로는 5,10, 20, 50,100,200,500 EURO가 있다.

환전은 공항, 호텔 또는 관광지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나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환율상 유리하다. 일반 상점에서는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 등 단위가 큰 지폐를 받기를 꺼려하고 아예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행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 단위의 지폐를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환전 시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쓰고 남은 지폐는 공항이나 일반 은행에서 재 환전할 수 있다. 유로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 회원국은 벨기에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유로 통화가 동시에 통용된다.

곳곳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한국 비자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와 수수료를 감안할 때 특히 소액 인출은 비경제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금출납기를 사용할 때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위를 살펴보고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매월, 매주, 매일 평균 환율은 벨기에 중앙 은행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참고: 벨기에 중앙은행 사이트: <http://www.nbb.be/app/cal/F/BelgoHome.htm>)

유로 대비 달러 환율

2008	2009	2010	2011	2012년 2월
1.4708	1.3948	1.3257	1.3920	1.3224

주: 연 평균 환율, 2012년은 2월은 월 평균 환율

자료: 벨기에 중앙은행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서울-브뤼셀 직항 운행 항공은 없고 서울-프랑크푸르트-브뤼셀 또는 서울-암스테르담-브뤼셀 서울-런던-브뤼셀, 서울-파리-브뤼셀 노선을 운행하는 KAL, KLM, AIR FRANCE, LUFTHANSA 항공이 있다.

□ 취항 항공사 연락처

○ KAL 브뤼셀 TOLL FREE

- 전화: 0800-11662

○ AIR FRANCE

- 예약 : 070-22-24-66 (Zaventem 브뤼셀 국제항공 전화번호: 02-735-6432)

- 웹사이트: www.airfrance.be

- LUFTHANSA
 - 전화 : 02-745-44-55, 02-720-22-26
 - 웹사이트 : www.lufthansa.be

- KLM
 - 전화 : 070-22-27-47
 - 웹사이트 : www.klm.com

- British Airways
 - 전화 : 02-717-32-17
 - 웹사이트 : www.britishairways.com

□ 저렴한 항공 예약 방법

- 서울행 항공료는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다르며 항공마다 항공료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지 신용 여행사를 통해 출국 기간에 어떤 항공사의 항공료가 가장 저렴한 알아본 후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로 한국 사람들이 애용하는 여행사는 ICTAM 이다.
 - 전화번호 : 02-548-99-00/ 팩스: 02-511-12-98,
 - 주소 : 52, RUE DE LA MONTAGNE,
 - 인터넷사이트 : www.ictam.com)

□ 알아두면 좋은 연락처

- 브뤼셀 국제공항 당국 인터넷 주소: www.biac.be
- 공항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 연락처 전화 번호: +32-(0)2-753 68 20

□ 운송

한국과 벨기에 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업체가 다수 있다.

2). 국내 교통

택시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없고 시내 중심지에 택시 승차 장소에서 타야 하며, 공항에는 공항 전문 운행 택시가 있다. 그 외 모든 택시는 콜 택시로 부르면 5-10분 내에 오는데 요금은 지정된 택시 승차장에서 타는 것과 동일하다. 요금 기준은 주간과 야간이 구분되며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는 1.86유로가 추가되고 시내와 시외가 다르다. 즉, 기본 요금은 2.40유로이고 브뤼셀 시내에서는 Km당 1.35센트, 교외에서는 2.70유로가 추가된다. 대기 요금은(교통 체증으로 기다리는 것도 포함) 시간당 19.83유로가 추가되므로 시내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택시 요금이 비싼 편이므로 대중 교통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택시 호출 번호: Taxi vert: 02/ 349 46 46

□ 시내 대중 교통

브뤼셀 시내에서는 버스를 타든 전차나 지하철을 이용하든 요금은 동일하며, 1시간 내에 어떤 교통 수단을 갈아 타든 요금을 다시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버스/지하철/전차 공용 티켓 요금은 1회용이 1.60유로(매표소에서 구입할 때) 또는 2.00유로(차내에서 기사에게 구입할 때)이며 5회용 카드는 7.30유로, 10회용은 11.20유로이다.

□ 기차

벨기에에는 철도망이 발달하여 웬만한 곳이면 기차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느 역에서나 기차 시간에 구매 없이 어느 기차나 탈 수 있는 국내 여행용 GoPass 또는 RailPass를 구입할 수 있다. GoPass는 26세 미만용으로 10회 편도 티켓이며 유효 기간은 1년이다.

□ Rail Pass 구입 방법

GoPass나 RailPass는 벨기에 철도청 사이트 <http://www.b-rail.be>에 들어가서 예약한 후, 벨기에 어느 기차역에서나 예약 번호와 지불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보이고 구입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의 작은 영토이므로 국내 비행기편은 없다.

3) 국제 통신

공중전화나 일반 전화기로 국내와 국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기차역, 공항, 길거리의 신문, 잡지, 담배를 파는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근래 휴대폰 소유자 수가 급증 하면서 공중전화 사용도가 낮아 공중전화를 줄이고 있으며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는 더욱 드물다.

4) 우편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발송되는 편지 및 소포 요금

무게	일반요금 (유로)	무게	소포요금 (유로)
50g까지	3.15	5 kg 까지	52
50-100g 까지	3.15	10kg 까지	104
100-350g 까지	6.30	20kg 까지	156
350g-1 kg 까지	14.70	30kg 까지	208
1-2 kg 까지	29.40	소포는 30 kg 까지 가능	

자료: 벨기에 우체국

5) 입국 시 면세 범위

타국가에서 벨기어로 입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유럽국가라 하더라도 스위스, 노르웨이 등 EU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여행자 물품의 통관 기준

○ 주류

- 포도주 2 리터 및 알코올 22% 초과 주류 1 리터 또는 알코올 22%미만 주류 2 리터(17 세 미만 여행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통관 자격 없음)

- 담배
 - 궐련 200 개비, 또는 소형엽궐련 100 개비 또는 여송연 50 개비, 또는 흡연용 담배 제품 250 그램
- 향수
 - 향수 50g 및 화장수 250cc
- 커피, 차
 - 커피 500g, 또는 커피추출물 및 엑기스 200g 및 차 100g 또는 차 추출물 및 엑기스 40g(15 세 미만 여행자는 커피 면세통관 자격 없음)
- 면세 허용 범위(일반 기준)
 - 총 175 유로 상당 물품(전문적/판매용 물품 및 개인 사용에 적합한 양 이상으로 반입된 물품은 면세되지 않는다)
- 외화
 - 1 만 유로 이상 현금의 반입/반출은 세관에 신고(2007.6.15 부터 시행, 모든 EU 회원국 동일 적용)

□ 반입 금지 품목

- 식품/농축수산물
 -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은 보건 당국의 확인 요함(해당 식품을 날것 및 냉장, 냉동, 냉동 상태로 반입하여 소비하고자 할 때만 해당), 식품 및 농축수산물 반입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 식물
 - 별도 허가 없이 반입 금지
- 동물
 - 가축의 경우 소유 증명서와 수의 검역 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물의 몸에 전자 칩이 내장되어야 함. 도착지 수위 검역 시 제출
- 과일
 - 반입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 의약품
 -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 사용 목적의 의약품은 통관 허용.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의약품 증명서 지참을 권고한다. 해당 증명서는 해당 약품의 처방 사실을 담당의사가 증명해야 한다.

□ 반 출입 금지 품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물품은 즉각 압류되며 해당 여행자는 형사 처벌된다. CITES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압류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 처벌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5-2,500 유로의 벌금 및 15일-3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 세관 신고 대상 품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물품은 즉각 압류되며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식품 반입에 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므로 통관 애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식품(김치, 오징어, 멸치, 고추장, 된장, 김, 젓갈, 미역, 간장, 쌀, 면 종류, 양념류 등)의 반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여행자는 면세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및 반입 제한, 금지 품목을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 이외에 세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브뤼셀에 소재한 Booking Service International 을 통해 카테고리별, 소재지별로 전국에 걸쳐 원하는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단, 별 3개 이상의 호텔, 즉 요금 수준이 싱글 100유로, 더블 125유로 이상 수준의 호텔이다.

- Booking Service International
- 전화: 32-(0)2 646 82 00, 팩스: 32-(0)2 646 88 08

웹사이트 <http://www.brussels-hotels.com>를 통해서 브뤼셀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 주요 호텔

- HUSA President Park Hotel
 - 전화: 32-(0)2 203 20 20/ 팩스: 32-(02) 203 24 40
 - 웹사이트: www.husa.es
 - 요금 (가격은 비수기일 때 인하될 수 있음.)
 - 싱글: 250 유로/더블: 280 유로
 - 아침 식사: 19 유로
 - 위치: 브뤼셀 북역(Gare du Nord, Nordstation)
- ARGUS Hotel
 - 전화: 32-(0)2 514 07 70/ 팩스: 32-(02) 514 12 22
 - 웹사이트: www.hotel-argus.be
 - 요금
 - 싱글: 100 유로(조식 포함)/ 더블: 120 유로(조식 포함)
 - 위치: 브뤼셀 시내 Porte de Namur(Naamsporte, 네덜란드어) 전철역
- HILTON Hotel
 - 전화: 32-(0)2 504 11 11/ 팩스: 32-(02) 504 21 11
 - 웹사이트: www.hilton.com
 - 요금
 - 싱글: 145~450 유로/ 더블: 175~480 유로
 - 가격은 투숙 고객 수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아침 식사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아침 식사 40 유로
 - 위치: 브뤼셀 시내 Louse(Louisa) 전철역

- NOVOTEL Hotel
 - 전화: 32-(0)2 514 33 33
 - 팩스: 32-(02) 511 77 23
 - 웹사이트: www.novotel.be
 - 요금
 - 싱글: 175 유로/ 더블: 184 유로
 - 아침 식사 15 유로 추가
 - 위치: 브뤼셀 시내 De Brouckere 전철역

여비에 큰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Youth Hotel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당 시설이 없고 화장실과 샤워도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 60여 개국에 걸쳐 6,000여 개의 Youth Hotel망을 가지고 있는 AUBERGE DE JEUNESSE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벨기에 전역에 걸쳐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

- AUBERGE DE JEUNESSE
 - 인터넷사이트: <http://www.laj.be>
 - 전화: 32-(0)2 219 56 76, 팩스: 32-(0)2 219 14 51

2) 식당

□ 한식

- 서울 식당(Restaurent Seoul): 브뤼셀
 - 주소: Rue Capitaine Crespel 14, 1050 Bruxelles
 - 전화: 02-513 17 25
- 한국관: 브뤼셀 외각
 - 주소: Leuvenessesteenweg 147 A, 3080 Tervuren
 - 전화: 02-767 82 25
- 하나: 브뤼셀
 - 주소: Rue Saint-Boniface 21, 1050 Bruxelles
 - 전화: 02-502 52 41

(주: 브뤼셀에 4개의 한국 식당이 있고 이들 한식 식당의 가격은 벨기에 중·상급 레스토랑 수준과 유사한 수준임.)

□ 일식

- Yamayu Santatsu: 브뤼셀
 - 주소: Chee d'Ixelles 141, 1050 Bruxelles
 - 전화: 02-513 53 12
- SAMURAI: 브뤼셀
 - 주소: Rue Fossé aux Loups 28, 1000 Bruxelles
 - 전화: 02-217 56 39

□ 양식

- Chez LEON: 브뤼셀 먹자 골목
 - 주소: 18 Rue des Bouchers, 1000 Bruxelles
 - 전화: 02-513 04 26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 기간

브뤼셀에 있는 국제기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구청의 민원 처리가 지적되고 있다. 관공서가 행정 처리 절차의 규정과 원칙을 고집하고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을 엄수하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국민들도 자국 관공서의 행정 처리 속도가 늦다는 불평을 하기도 한다.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때에는 방문 전에 근무 시간, 준비해야 할 서류, 수수료 등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순조롭게 행정 처리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벨기에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채용 제도를 시정하고 객관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민간 기업과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주민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업무 태도로 전환시키는 공무 제도의 개혁으로 고객 만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행정 편의와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인터넷 행정(e-administration)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행정 간소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고 있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 사항

일반적으로 관공서 직원들은 영어를 잘 못하므로 언어권 지역에 따라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인에 대해서 다소 고자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외모를 말끔히 가꾸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번호표 시스템이 되어 있어 오는 사람대로 번호표를 이용하여 차례를 기다리며 간단한 문의라고 판단하여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묻는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일단 자기 차례가 끝나면 또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하므로 문의할 사항이 많으면 잊지 않고 한꺼번에 묻도록 문의 사항을 미리 종이에 적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공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행정 업무 종류마다 근무 시간이 다소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공서에 가기 전에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근무 시간 내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근무 시간이 1-2분 지났다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선물을 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자. 공휴일

1) 출장 지양 기간

위에 언급한 공휴일 이외에도 2월 2일(월요일)부터 7일(금요일)까지 카르나발 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는 1주일간 방학이라 자녀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갖기 때문에 비즈니스맨 접촉이 어려운 기간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부활절 방학(4월 5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금요일)에도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 기간 중에도 비즈니스맨 접촉이 어려우므로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전국 초, 중고등학교는 부활절 2주 전에 2주일간 방학(방학 일자는 매년 각 언어권 소속 문교부에서 결정)에 들어가며 학생들 방학 중에는 자녀들과 휴가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 기간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휴가 일정을 미리 알아본 후 이에 맞추어 출장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금요일까지 또는 공휴일이 토요일 이나 일요일에 겹칠 경우 월요일까지 휴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장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7-8월에는 학교 방학은 물론 직장인의 대부분이 휴가 시즌이므로 이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휴가 일정을 사전에 알고 대처해야 한다.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는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연시로 특히 관공서의 '연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휴일

2012년 벨기에 공휴일

날짜	공휴일
1월 1일 (일요일)	신정 (JOUR DE L'AN/NIEUWJAAR)
4월 9일 (월요일)	부활절 (PAQUES/PASEN)
5월1일 (화요일)	노동절 (FETE DU TRAVAIL/FEEST VAN DE ARBEID)
5월17일 (목요일)	예수승천일(ASCENSION/O.H.HEMELVAART)
5월 28일 (월요일)	오순절 (PENTECOTE/PINKSTEREN)
7월 21일 (토요일)	독립기념일 (FETE NATIONALE/NATIONALE FEESTDAG)
8월 15일 (수요일)	성모승천일 (ASSOMPTION/O.L.V TENHEMELOPNEMING)
11월 1일 (목요일)	만성절 (TOUSSAINT/ALLERHEILIGEN)
11월11일 (일요일)	휴전기념일 (ARMISTICE/WAPENSTILSTAND 1918)
12월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NOEL/KERSTMIS)

주: ()는 벨기에 공용어인 프랑스어/네덜란드어 표기임.

*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전날인 금요일이나 또는 다음날인 월요일을 휴일로 결정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함.

차. 여행시 유의 사항

1) 여행 준비

□ 의복 준비

북반구에 위치하여 한국과 계절 변화가 같으며 4 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해양성 기후라 숲 지대인 독일과 룩셈부르크와 접하고 있는 국경 지방을 제외하고는 겨울에 영하 섭씨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 기온을 유지한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으므로 두꺼운 모직 코트보다는 방수 천으로 된 파카 같은 상의가 더 유용하다. 또한 여름에는 기온이 25-30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30도 이상의 날씨는 드물고 한국처럼 무덥지 않아 여름을 지내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여름옷은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다.

□ 전기 규격

50HZ, 220V이고 전기 플러그 모양도 다르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쓸 때는 겸용 전자제품을 준비하는 것이 편하다.

2) 여행 여건

□ 치안 및 위험 지역

벨기에는 범죄가 특별히 심한 국가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 일부 지역은 소매치기 등의 경미한 범죄가 빈발하다. 특히 야간 외출 시 현금을 너무 많이 지니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며, 혼자 다니기보다 가급적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며 쓸 돈만 따로 준비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돈이 많이 든 지갑을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공항, 버스, 전차, 전철, 길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가방 등 소지품에 조심해야 한다. 누가 길을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속히 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치기들은 길을 묻는 척하면서 또는 길을 찾느라고 두리 번 거릴 때 길을 가르쳐 주는 척하면서 상대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공범이 소매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농담 조로 말을 붙이거나 손으로 얼굴과 몸을 톡톡 치면서 정신을 혼란케 하는 동안 소매치기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카페나 식당에서도 소매치기가 성한데 특히 의자에 앉을 때 반드시 가방을 무릎에 걸치고 앉고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가방을 의자 뒤에 걸어두지 말고 어깨에 걸치거나 무릎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 소지품이나 돈을 땅에 떨어뜨렸다면 정신을 빼놓은 다음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경찰 정복 차림의 사기꾼 일당이 2-3명씩 그룹으로 다니면서 여행객을 상대로 위조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마약 소유 여부를 검사한다며 몸과 가방을 뒤지고 지갑의 돈을 감쪽같이 빼간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당황하여 가방을 맡기지 말고 동행하여 경찰서로 직접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지갑, 가방 등 소지품을 일체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브뤼셀 시내 역(북역, 중앙역, 남역) 근처와 그 랑플라스와 뤼네브(Rue Neuve)의 쇼핑지역은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안전 경보 영사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사콜 센터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는 연중 무휴 24시간 여권 발급에 대해 알려주고 해외여행 중 사건 발생시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한다.

○ 영사콜 센터 연락방법 :

- 국내 : 02) 3210-0404(유료)
- 해외 무료연결 :
 - 현지국제전화코드 +800-2100-0404(벨기에에서의 경우 00+800-2100-0404)
 -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5
- 유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822-3210-0404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www.0404.go.kr

□ 택시

역전이나 공항에는 택시가 있지만 시내에는 지정된 몇 곳에만 택시 정류장이 있으므로 시내에서 택시 타기는 비교적 어렵다. 또한 지나가는 빈 택시를 불러도 잘 서지 않는다. 지나가는 빈 택시는 사실상 빈 택시가 아니라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벨기에에서는 택시 정류장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택시 외에는 불러야 오는 콜택시이므로 택시를 타려면 가급적 호텔이나 레스토랑, 사무실, 집 등에서 부르는 것이 편하다.

일반 택시와 콜택시의 요금 차이는 없다. 택시요금은 미터기로 기록되므로 속임수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단 시외로 나갈 때는 미터기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점에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택시 회사를 접촉,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응급

대부분의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으며 응급실로 직접 갈 수 없을 때 100번을 누르면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이동할 수 있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 치료비가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화재 신고도 100번으로 할 수 있고 경찰서 긴급 번호는 110번이다.

□ 팁 관행

모든 서비스에는 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금 이외에 별도로 팁을 줄 의무는 없으나 택시를 탈 때 짐이 많아 운전수가 도와주거나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흔히 소정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다.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서비스 비용은 없으며 서비스에 만족한 경우 소정의 팁을 주기도 한다.

□ 식수

수돗물은 어디서나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지형적 성격상 석회가 비교적 많아 미네랄 워터를 보통 음료수로 마신다. 현지 식당에서는 물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별도로 미네랄워터를 주문해야 한다.

□ 이발소, 미장원

이발이나 미용비가 아주 비싸고 이발 방식도 우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한국에서 이발, 미용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3) 쇼핑

벨기에 물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것이 1.5-2배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비상 연락처

- 응급의료 서비스 : 전화번호 100
- 화재 : 전화번호 100
- 경찰 : 101
- 유럽 긴급구조대 : 102
- 약물, 식품 중독 : 전화번호 070 245 245
- 중화상 : 02-268 62 00
- 교통 사고 : 112(EU 내에서는 어디서나 동일한 번호임)

2) 한국 기관

- 대사관 겸 EU 대표부
 - 주소 : Ch.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 전화 : 02-675 57 77
- 무역관
 - 주소 : Boulevard du Roi ALBERT II, No.30, 1000 Brussels
 - 전화 : 02-203 21 42
 - E-메일 : ktcbrus@skynet.be
- 무역협회
 - 주소 : Av. Louise 165, 1050 Brussels
 - 전화 : 02-646 21 80
 - 인터넷 주소 : <http://www.kotis.net>
- 재벨한인회
 - 주소 : Rue des Cerisiers 21, 7090 Braine-le Comte, Belgium
 - 전화 : 067-56 15 96
 - 팩스 : 02-251 82 52
 - 인터넷 주소 : <http://www.belgiumkorean.yahoo.com>
- 대한항공 브뤼셀 지점
 - 전화 : 02-751 80 85
 - 팩스 : 02-751 79 60
 - 24시간 예약서비스 무료 전화번호 : 0800-0656-2001
- 브뤼셀 한인교회
 - 전화 : 02-768 14 45
 - 팩스 : 02-768 28 16
 - 주소 : Museumlaan 2, 1970 Wezembeek-Oppem
- 벨지움 선교교회
 - 전화 : 02-306 60 26
 - 팩스 : 02-332 30 50
 - 주소 : Alsebergsesteenweg 1131, 1650 Beersel

3) 관공서

- 경제성
 - 주소 : North Gate III, Bld.du roi Abert II, 12, 1000 Brussels
 - 전화 : 02-206 41 11
 - 인터넷 주소 : <http://www.mineco.fgov.be>
- 외무성
 - 주소 : rue Petit Carme 15, 1050 Brussels
 - 전화 : 02-501 81 11
 - 인터넷 주소 : <http://www.diplobel.org>
- ACE(Agence pour le Commerce Exterieur 벨기에 연방정부 무역진흥청)
 - 주소 : rue Montoyer 3, 1000 Brussels
 - 전화 : 02-206 35 11
 - 인터넷 주소 : <http://www.obcebdbh.be>
- 법무성
 - 주소 : Bld.Waterloo 115, 1000 Brussels
 - 전화 : 02-542 65 11
 - 인터넷 주소 : <http://www.just.fgov.be>

4) 은행

- ParibasFortis Bank
 - 주소 : Bld. Anspach 3, 1000 Brussels
 - 전화 : 02-211 04 76
 - 인터넷 주소 : <http://www.bnparibasfortis.com>
 - E-메일 주소 : info@bnparibasfortis.com
- ING Bank
 - 주소 : Av. Marnix 24, 1000 Brussels
 - 전화 : 02-547 21 11
 - 인터넷 주소 : <http://www.ing.com>
- KBC Bank
 - 주소 : 1 Havenlaan, 1000 Brussels
 - 전화 : 02-422 71 11
 - 인터넷주소 : <http://www.kbc.com>

5) 경제 단체

- FEB(Federation des Entreprises Belges, 벨기에 경제단체 연합회)
 - 주소 : Rue Ravenstein 4, 1000 Brussels
 - 전화 : 02-515 08 11
 - 인터넷 주소 : <http://www.vbo-feb.be>
 - E-메일 : red@vbo-feb.be

- AGORIA(벨기에 금속, 전기, 전자, 기계제조협회)
 - 주소 : Bld. A. Reyers 80, 1030 Brussels
 - 전화 : 02-706 78 00
 - 인터넷 주소 : <http://www.agoria.be>
 - E-메일 : howard.wei@agoria.be (아시아 담당 Mr. HOWARD WEI)
- Brussel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주소 : Av. Louise 500, 1050 Brussels
 - 전화 : 02-648 50 02
 - 인터넷 주소 : <http://www.cci.be>
- Essenscia(벨기에화학협회)
 - 주소 : Square Marie-Louise 49, 1000 Brussels
 - 전화 : 02-238 97 11
 - 인터넷 주소 : <http://www.essenscia.be>

타. 관광 명소

1) 그랑플라스(Grand'Place, 혹은 Grot-Mart)

프랑스 작가 Victor Hugo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극찬했던 브뤼셀의 중심을 이루는 대 광장으로 중세기 이래 벨기에 번영의 자취를 볼 수 있다. 그랑플라스는 시청을 둘러싸고 박물관, 카페, 레스토랑, 특산물 상점들이 옛날 바로크 양식의 길드하우스에 들어서 있고 커피나 맥주를 마시면서 그랑플라스의 정경을 즐길 수 있다. 브뤼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 중에는 Victor Hugo가 망명 당시에 머물렀던 집도 남아있다.

2) 오줌싸개 소년상 Manneken Pis

그랑플라스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줌싸개 소년상은 17세기 초 제롬 뒤께누와(Jerome Duquesnoy)가 만든 동상으로서 브뤼셀의 역사적 변천을 지켜 본 브뤼셀 부르쥬아의 선조이자 증인이다. 오줌싸개 소년상은 개구쟁이와 같은 장난기와 조롱기의 유머가 가득 찬 브뤼셀 주민의 정신을 상징하며 동상의 크기는 60cm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이다. 오줌싸개 동상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142년 Ransbeke 전쟁에서 고드후르아(Godefroid) 2세의 군대가 태어난 지 3개월 된 공작 아들을 볼모로 잡아 요람에 매달아 놓자 오줌 싸는 흥내를 보였다고 한다.

3) Saint Gudule 성당

그랑플라스에서 약 500미터 북쪽에 위치한 성당으로 15세기 초의 아름다운 고딕식 성당

4) 벨기에 만화박물관 (Belgian Comic Strip Center)

벨기에에는 틴틴(Tin Tin)작가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만화 작가 들이 다수 있다. 브뤼셀에 있는 만화박물관에는 이들 작가들의 그림과 작품을 진열하고 있다.

5) 악기 박물관

유럽 전통의 고전 악기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는 각 민족 악기를 한 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악기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건물의 건축 양식은 Art Nouveau(아르누보) 양식으로 아르누보의 상징적 인물인 벨기에 Victor Horta가 설계한 건물이며 건축 자재로 철과 유리를 사용했으며 부드러운 곡선과 색유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6) 워털루 (Waterloo)

브뤼셀에서 약 20 km 남쪽. 나폴레옹과 웰링턴 장군이 대격전을 벌이던 전쟁터로 나폴레옹의 패배로 끝나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7) 브뤼즈 (Brugge)

북쪽의 베니스라고 일컫는 곳으로 중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도시. 브뤼셀에서 북서쪽(북해)으로 약 130km. 전철 이용 가능

8) 안트워프 (Antwerpen)

안트워프에는 뤼벤스 하우스(Rubens)가 있고 안트워프 시내 성당을 둘러싸고 마치 브뤼셀 그랑플라스와 같이 카페,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항구도 구경해 볼 만 하다.

9) 아르덴 (Ardennes)

아르덴 지방은 벨기에의 유일한 숲과 계곡이 있는 곳으로 사슴, 멧돼지들이 자유롭게 자라고 가을 사냥철에는 이들 야생고기를 맛볼 수 있다.

10) 쇼핑 장소

브뤼셀 시내 쇼핑 장소는 rue Neuve를 중심으로 그랑플라스 주변 쇼핑센터와 avenue Louise, Woluwe 쇼핑센터가 있는데 고가 상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으므로 쇼핑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유명 브랜드 판매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은 루이즈가(Avenue Louise)이다.

11) 특산물

벨기에 특산물은 초콜릿, 맥주, 벽걸이 카펫, 자수 제품들이라 할 수 있다. 관광 명소인 그랑플라스에 초콜릿과 벽걸이 카펫, 자수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들이 많이 있으며 브뤼셀 국제 공항 내 상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전시회명	기간	장소	내용	홈페이지
BATIBOUW PROFESSIONAL DAYS	2012.03.01~ 2012.03.02	Brussels Expo	국제건축 및 장식박람회	www.batibouw.com
BATIBOUW	2012.03.03 ~2012.03.11	Brussels Expo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박람회	www.batibouw.com
SALONDUMARIA GEORIENTAL ET OCCIDENTAL	2012.03.10 ~2012.03.11	Foire internationale de Liège sc Expo Center	결혼 박람회	www.sdmo2012.be
MINERAL EXPO	2012.03.10 ~2012.03.11	Luxexpo Expo Center	광물 및 보석 박람회	www.mineralexpo.lu
BABYBOOM	2012.03.16 ~2012.03.18	Brussels Expo	예비 학부모 박람회	www.salonbabyboo m.be
ESTETIKA SPRING	2012.03.17 ~2012.03.19	Brussels Expo	화장품, 바디케어, 발치료 및 손치료	www.estetika.be
EURANTICA BRUSSELS	2012.03.22 ~2012.04.01	Brussels Expo	앤티크 예술 박람회	www.eurantica.com
PAPI'ON 2012	2012.03.23 ~2012.03.25	Foire internationale de Liège sc Expo Center	은퇴인들을 위한 박람회	www.papion.be
DOLL-AMD TEDDYBEAR SHOW	2012.03.24 ~2012.03.25	Grenslanhalle n-Ethias Arena-Fair Organizer	인형 박람회	www.niesjewolters.nl
ETHNIC FOODS EUROPE 2012	2012.03.27 ~2012.03.29	Brussels Expo	음식 및 여가 박람회	www.ethnicfoodseu rope.com
INFOSECURITY. BE & STORAGE EXPO	2012.03.28 ~2012.03.29	Brussels Expo	IT보안&정보관리 박람회	www.infosecurity.be
MADE IN ASIA	2012.03.31 ~2012.04.01	Brussels Expo	아시아문화 및 레저 박람회	www.madeinasia.be
ART BRUSSELS	2012.04.19 ~2012.04.22	Brussels Expo	국제 현대 예술 박람회	www.artbrussels.be
SEAFOOD PROCESSING EUROPE	2012.04.24 ~2012.04.26	Brussels Expo	해산물 처리 박람회	www.europrocessi ng.com

전시회명	기간	장소	내용	홈페이지
EUROPE SEAFOOD EXPOSITION	2012.04.24 ~2012.04.26	Brussels Expo	국제 해산물 박람회	www.euroseafood.c om
TROUW- MARRIAGE ANTWERPEN	2012.10.05 ~2012.10.07	Antwerp Expo(Artexis Group- Exhibition&Co ngress Cetres)	안트워프 결혼 박람회	
SALON DU MARIAGE ET DE L'ENFANT, DE LA BEAUTE ET DU BIENÊTRE	2012.11.10 ~2012.11.11	Lotto Mons Expo	결혼 박람회	www.salonmariagee tenfant.be
SALON DU MARIAGE & PACS DE LA LOUVIÈRE	2012.10.20 ~2012.10.21	Hall des Expo La Louvière	결혼 박람회	www.mariagelalouvi ere.be
Ceremonia - salon du mariage	2012.10.27 ~2012.10.28	Namur Expo (Artexis Group - Exhibition & Congress Centres)	결혼 박람회	www.salon- mariage.be
Agriflanders 2013	2013.01.10 ~2013.01.13	Flanders Expo (Artexis Group- Exhibiion&Con gress Centres)	플래미쉬 농업 및 원예 박람회	www.agriflanders.b e
INTERSOLUTION	2013.01.24 ~2013.01.26	Flanders Expo (Artexis Group- Exhibiion&Con gress Centres)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	www.intersolution.b e
INTERNATIONAL HOLIDAY FAIR OF FLANDERS	2013.01.24 ~2013.01.28	Antwerp Expo(Artexis Group- Exhibition&Co ngress Centres)	여가 및 여행 박람회	www.vakantiesalon- vlandderen.be
REVA	2013.04.25 ~2013.04.27	Flanders Expo (Artexis Group- Exhibiion&Con gress Centres)	장애인 박람회	www.reva.be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전시회 정보제공 웹사이트

- www.exhibitions.be: 벨기에에서 열리는 모든 전시회 개최 일정 정보 제공

□ 벨기에 주요도시 소재 전시회장 관리기관

- 브뤼셀: www.bruexpo.be
- 겐트: www.flandersexpo.be
- 나뮈르: www.namur.expo.be
- 안트워프: www.antwerpexpo.be
- 코르트렉: www.kortrijkexpo.com